





# 2019학년도 1학년 열린연단

## 1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고,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는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하여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창의적 사고 역량 및 학업 역량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인천국제고 학생들에게 지식정보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열린연단을 기획하였습니다.

## 2 IIHS 열린연단

학년과 학급의 임원을 중심으로 IIHS 열린연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획, 홍보, 관리, 진행, 정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12기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 경제, 경영, 정치, 법률, 사회학,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 :: 인문학(역사, 철학), 자유전공 등 9개의 진로분야 중 자유선택으로 주제 선정

- ① 7분의 개인 주제 발표
- ② 5분의 질의응답 시간, 강연자와 청중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 ③ 3분의 피드백 시간(강연에 대한 청중의 평가를 기록)

본 책자의 구성은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의 열린연단 강연 주제를 기록하였고, 그 중 선발된 10명의 열린연단 BEST 강연자의 작품과 강연 내용을 편집하여 실었습니다.

# CONTENTS

- | 2019학년도 1학년 열린연단
- | 2019학년도 열린연단 추진단장
  - || 10520 박찬영
- | 2019학년도 열린연단 추진단 명단
- | 2019학년도 열린연단 개인별 강연 주제

## | 1장 Ethology

- 15 | 시청자들은 눈치 채지 못하는 '이 프로그램'의 잔인함
  - || 10306 박서현
- 23 | 나무도 말할 수 있다 : 우리가 몰랐던 숲의 모습
  - || 10609 윤려원
- 31 | 불편한 편리함, 세금
  - || 10605 서효원
- 41 | 말을 잘하고 싶나요?
  - || 10311 이도운
- 51 | 10조원을 증발시킨 조너선 아이브
  - || 10124 최재현

## | 2장 Ethics

- 65 | 어디까지 보고 있으신가요?
  - || 10206 박제이
- 75 | 청년실업의 주인공, 아무도 모른다
  - || 10112 안소현
- 87 | 다음은 당신입니다.
  - || 10616 채윤희
- 99 | 내 안의 프레임: 나를 바꾸게 하는 것
  - || 10401 김미소
- 107 | 내 인생의 Spotlight
  - || 10414 최현승



## 2019학년도 1학년 열린연단 추진단

10520 박찬영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  
경청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연단은 인천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강연자로서 각자 생각한 주제로 강연을 함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됩니다. 아울러 청중으로서 다른 친구들의 강연을 들으며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열린연단은

3월 열린연단 추진단 조직과 운영 회의로 시작하였고,  
**143회의 열린연단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올 한 해의 열린연단 강연 중 최고의 강연을 선발하여 12기가 다 같이 듣는 열린연단 BEST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강연자로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조사하고 강연을 준비했으며,  
**청중으로서** 강연자의 강연을 경청하며 듣고 피드백을 하였으며,  
**열린연단 추진단**은 강연 전 강연 준비부터, 강연 중 사회자 역할 수행, 강연 후 청중의 피드백을 강연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열린연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자와 함께 열린연단을 추억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학년도 1학년 열린연단 추진단 명단

학번	이름	직책	담당
10520	박찬영	학년장 (추진단장)	총괄 운영, 기획, 실행
10322	장홍준	부학년장	기획 및 실행, 자료수집, 사진
10119	박수석	1학기 1반 학급 반장	1학기 열린연단 추진단 열린연단 홍보 및 강연장 준비 열린연단 사회 및 행사 운영
10116	조은지	1학기 1반 학급 부반장	
10206	박제이	1학기 2반 학급 반장	
10214	정채영	1학기 2반 학급 부반장	
10311	이도윤	1학기 3반 학급 반장	
10317	김주호	1학기 3반 학급 부반장	
10412	정지원	1학기 4반 학급 반장	
10419	김현호	1학기 4반 학급 부반장	
10518	박준원	1학기 5반 학급 반장	
10509	이세연	1학기 5반 학급 부반장	
10618	김민규	1학기 6반 학급 반장	
10608	안혜린	1학기 6반 학급 부반장	
10111	성승은	2학기 1반 학급 반장	
10105	김윤민	2학기 1반 학급 부반장	
10202	김은우	2학기 2반 학급 반장	
10214	정채영	2학기 2반 학급 부반장	
10311	이도윤	2학기 3반 학급 반장	
10318	박문수	2학기 3반 학급 부반장	
10414	최현승	2학기 4반 학급 반장	
10419	김현호	2학기 4반 학급 부반장	
10503	권현민	2학기 5반 학급 반장	
10523	정찬호	2학기 5반 학급 부반장	
10608	안혜린	2학기 6반 학급 반장	
10601	강유하	2학기 6반 학급 부반장	

## 2019학년도 열린연단 개인별 강연 주제

학번순으로 정렬

학번	이름	강연 주제
10101	가예림	청소년 관련법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10102	강민서	당신이 보는 모든 것들의 상관관계
10103	김민교	남녀평등사회, 여성과 남성은 정말 '평등'한가?
10104	김민정	범죄자들의 심리
10105	김윤민	세계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10106	김혜윤	어떤 배려
10107	노위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이유
10108	류시아	살아있는 활자의 인문학
10109	박세정	문화 콘텐츠 속 여성. 어디까지 왔을까?
10110	박수빈	당신이 판사입니다.
10111	성승은	당신의 눈과 귀는 열려 있나요?
10112	안소연	청년 실업의 주인공, 아무도 모른다
10113	유채연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의 현실-중증외상센터와 닥터헬기를 중심으로
10114	전지현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10115	조유정	한국의 연쇄살인범과 심리적 요인
10116	조은지	당신이 억울한 이유
10118	박상원	소비를 부르는 비밀
10119	박수석	내가 찍은 아이튠즈
10120	방승원	저주로 둘러싸인 왕, 인조
10121	오은택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10122	이상현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한 효율적 외교
10123	이태양	자본주의의 변천사
10124	최재현	10조원을 증발시킨 초저선 아이브(디자인이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학번	이름	강연 주제
10201	강예린	모두 국기에대하여 충성을 맹세합니까?
10202	김은우	우리집에 왜 왔니?
10203	남수빈	나를 사랑하자: 거울과 셀피 그리고 나
10204	박나영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10205	박사라	당신이 생각하는 살인자의 모습은?
10206	박제이	어쩌면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다.
10207	신윤진	관념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는가? (모성애, 사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
10208	심정민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10209	이인서	행복전달자: The Happier
10210	이채원	잘못을 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 심신미약 감형
10211	이하연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
10212	전해인	존엄사에 대하여
10213	전혜림	제 2의 독립운동에 대해 말하다. (일본 불매운동)
10214	정채영	당신은 한국어를 잘하시나요?
10215	김은빈	내가 나, 너와 함께하는 삶
10216	최한별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
10217	길경준	소신과 망언 사이
10218	송의호	인간 소외의 순환성(웹툰 loop_를 기반으로)
10219	신취수	과연 우리들에게 통일은 필요한가?
10220	이성현	유튜브와 언론
10221	이승현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10222	이영찬	고등학생으로 산다는 것
10223	이진섭	직업의 귀천에 대하여
10224	이한서	무엇이 흥미를 유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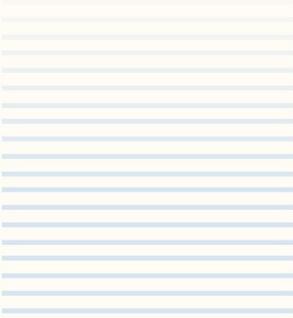
학번	이름	강연 주제
10301	김민서	내 손안의 ∞
10302	김서현	당신도 '관중'입니까?
10303	김유진	CCTV 언론: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10304	김은지	경제,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10305	김하은	우리에 묻혀 내가 사라지는 세상
10306	박서현	인싸되는 법
10307	박수민	유기동물 10만 시대, 이대로 괜찮을까요?
10308	박혜상	주토피아의 주디가 여성스럽다고?
10309	안가은	정보화시대의 비판적 사고
10310	유하임	Nothing has changed
10311	이도운	말을 잘 하고 싶나요?
10312	정은혜	영화로 만나보는 법률이야기 [7번방의 선물, 그리고 법]
10313	조다빈	인공지능의 발달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갖추어야 할 자세
10314	주에스더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10315	최정민	글로벌 경영 전략, K-Pop에서 찾다
10316	홍혜연	완벽한 조별과제
10317	김주호	애국하는 매국노
10318	박문수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철학, 종교, 자유전공)
10319	배정민	언론의 브랜드메이킹
10320	유건재	21세기의 인터넷 검열
10321	이재승	나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10322	장홍준	공포영화의 심리학
10323	정의민	스포츠와 정치
10324	정의준	필터 버블 탈출

학번	이름	강연 주제
10401	김미소	내 안의 프레임 나를 바꾸게 하는 것
10402	김민하	지금은 뉴미디어시대
10403	김어진	코피노: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한국인
10404	박소민	논란의 중심에 선 팩션영화. 빅데이터로 파헤치기
10405	박소은	Into the life of an addict
10406	오은빈	슬프지만 자랑스러운 세계기록유산. 5.18 민주화운동
10407	이다빈	그림자에 가려진 호랑이를 아십니까?
10408	이연주	행복의 목적
10409	이정연	예서 엄마는 예서를 어떻게 키운거야?
10410	장혜주	지역감정, 우리는 인천사람입니다.
10411	정수진	그들이 머무르는 곳 feat. LH
10412	정지원	조현병, 그것이 알고싶다
10413	최세진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10414	최현승	당신에게 죽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10415	홍유림	내 신발이 정말 15만원?
10417	권근모	당신의 색은 무엇입니까?
10418	권윤석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미래
10419	김현호	다문화사회, 어디까지 알고있니?
10420	석지웅	문학 속 노동: 노동의 사회적 평가
10421	유시우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0422	윤서준	농사직설
10423	정은준	법 좀 아는 원숭이

학번	이름	강연 주제
10501	강윤아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 감정과 권리에 대해
10502	권수민	능력과 공정무역
10503	권현민	다운타운 프로젝트
10504	금유빈	당신이 혐오했던 것들
10505	김서현	우리나라의 성범죄 현황
10506	김지원	당신의 자존감은 무사한가요?
10507	박민서	Free is Freedom!
10508	안소연	우리는 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가
10509	이세연	고양이가 유죄라고?
10510	이연우	당신의 스트레스는 안녕하십니까?
10511	이유나	성공의 시크릿
10512	이해슬	우리가 잊어가는 위안부
10513	임채원	우리가 몰랐던 고려사
10514	정채은	대총살자. 어차피 유노윤호가 내 뒤통까지 열심히 살겠지
10515	최윤서	인국래퍼
10516	한희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용기
10517	김진우	우리 정치가 가야하는 길
10518	박준원	마케팅이 왜 중요할까?
10519	박준표	청소년범죄 사례들과 앞으로의 소년법의 방향
10520	박찬영	나는 헌법을 고발한다.
10521	방예성	국제재판소와 국제분쟁
10522	이유준	법 없는 세상 속 경찰
10523	정찬호	안락사, 누구의 선택인가
10524	최민재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이유

학번	이름	강연 주제
10601	강유하	말이 칼이 될 때
10602	김령은	진정한 몸매의 아름다움이란
10603	김은우	기레기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10604	류진	우리는 왜 자기합리화를 할까?
10605	서효원	불편한 편리함. 세금
10606	성해나	YOUnicedf, Wenicedf
10607	송예나	당신의 관념은 안녕하십니까?
10608	안혜린	이미지와 적격성
10609	윤려원	우리가 몰랐던 숲의 모습
10610	윤하나	홍콩의 시민성과 홍콩시위(그들은 원래 중국인이 아니었다)
10611	이비아	행복할 때만 인스타그램을 켜라
10612	이서연	그들은 왜 독립운동을 해야만 했는가?
10613	이채현	가족 경영과 전문 경영
10614	정희애	OTT 서비스 도대체 왜?
10615	진서영	동화 속 법 이야기
10616	채윤희	다음은 당신입니다. - 디지털 소외에 대해서
10617	김대원	잡아지는 외교결례, 해결 방안은?
10618	김민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0619	박성강	당신이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10620	박성호	스포츠산업의 발전
10621	박윤재	우리 생활 속 법률이야기
10622	송주영	오만과 편견
10623	이진우	법이 사라진다면? - 법의 배경, 종류, 특징을 중심으로
10624	정인준	대한민국을 세계로! 미래로!





## Various Major

박서현 '시청자들은 눈치 못 채는 '이 프로그램'의 잔인함'  
윤려원 '나무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몰랐던 숲의 보물'

## Economics

서효원 '불편한 편리함, 세금'

## Journalism

이도윤 '말을 잘하고 싶나요?'

## business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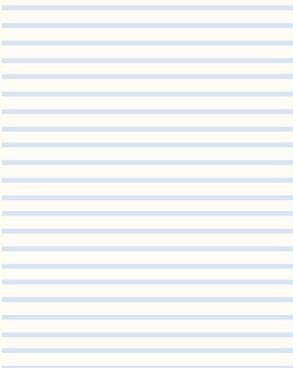
최재현 '10조원을 증발시킨 조너선 아이브'

---

# ethnology

---

Various major & Economics & Journalism & Business administration





# 시청자들은 눈치 채지 못하는 ‘이 프로그램’의 잔인함

10306 박서현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강연자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들의 참가자들을 향한 혹평과 비난, 그리고 이를 단순한 조언으로써 수용하는 시청자들에 대해 화두를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 되고 있는 문제인 ‘감정폭력’에 대해 강연하며 청중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상처 받지 않을 권리’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감정폭력,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BACKGROUND

### 시청자들은 눈치 채지 못하는 '이 프로그램'의 잔인함

초등학교 때 제가 정말 즐겨보던 'K-pop star'와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은 절대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떨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대에 오른 어리고 앳된 참가자들을 향해 몸매지적, 춤/노래 실력에 대한 혹평과 비난 등을 남발하고는 합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학대당하는 자극적인 장면들은 높은 시청률을 얻는 요인이 되고, 시청자들도 다소 가혹한 면이 있더라도 전문가들의 조언인 만큼 입에 쓴 보약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구도 참가자들이 겪는 굴욕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 폭력' 속에 흔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정폭력의 가해자였을 수 있고, 피해자로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추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CONTENTS

###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문제

#### '감정 폭력'이란?

독일의 저명한 의학박사 '베르너 바르텐스'는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문제 중 하나로 바로 이러한 '감정폭력'을 꼽습니다. 은근한 무시, 깔보는 듯한 발언, 애정을 불모로 한 헐박 등 수동적 공격의 형태를 띤 감정 폭력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물리적 폭력보다 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감정폭력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감정폭력의 피해자가 감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감정 폭력을 당했던 자녀들이 후에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이를 반복하는 행위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 감정폭력의 '심각성'

베르너 바르텐스는 감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등 공신력 있는 연구 자료와 전 세계의 수많은 의사, 심리학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아메트 타비콜' 의학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감정폭력은 마치 흡연처럼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질환을 일으킬 확률을 높였고, 이 뿐만 아니라 베를린 샤리테병원 심리학 교수인 시비네 아우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음의 상처는 뇌에 손상을 주고 신체기능을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인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버릴것 같아!'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학계가 구체적으로 입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 상처받지 않을 권리

우리는 몸이 다친 사람에게는 쉽게 공감하고 배려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런걸 가지고 그래?',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사람이 그 정도 말도 못해?'라는 말을 무심코 던지고는 합니다.

누군가 물리적 폭력에 희생양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공감하고, 더는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야 합니다.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굴욕을 당할때, 영혼에 새겨지는 상처는 아무도 보지 못하기에 방금과 같은 사람들의 태도와 말들 속에서 끓고 썩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직원을 꾸짖는 상사, 경제력이 없는 아내를 무시하며 비난하는 남편,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냉대하는 부모, 이들은 모두 감정폭력의 가해자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고 내 마음 한편이 찢찢하다면 그게 바로 '감정폭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폭력은 가장 흔하게 벌어지지만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을 더욱더 심하게 자책하고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만약, 감정 폭력에 노출되었다면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와 똑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뒀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전에 상처받지 않을 내 권리를 입 밖으로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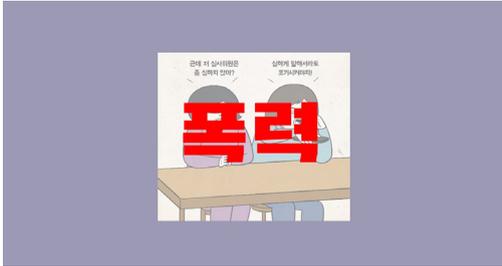
### 감정폭력=조언?

사람들은 흔히들 감정폭력을 단순한 '조언'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조언과 감정폭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한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존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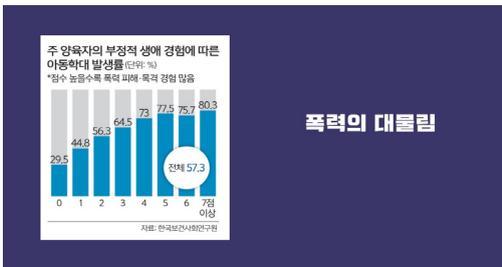
에너지를 흠쳐 가는 사람들과 현명하게 헤어져야 하며 나 또한 조언과 감정폭력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는 조언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참고] 발표 자료





## 2. 감정폭력



## 3. 상처받지 않을 권리

감정폭력? 그게 뭔데?



**가해자**

상처받지 않을 권리

4. 인천국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조언 / 감정폭력 ?



**THANK YOU!**

감정폭력 없는 사회를 응원합니다!



## #FEELINGS

### 사람들은 눈치 채지 못하는 ‘감정폭력’의 잔인함

이번 강연은 저에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감정폭력에 대해 알아보며 그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감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상기할 수 있게 해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나는 타인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감정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던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제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범위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정폭력이 큰 범위인 사회에서 만연하게 된다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인간관계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나의 상처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더 나아가 타인의 상처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고 넘어가는 ‘감정폭력’의 잔인함에 대해 강연하며 친구들에게 이를 상기시키고, 올바른 인식과 가치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었고, 보람 있었습니다. 제 강연을 통해 친구들이 감정폭력에 대해 조금의 생각의 변화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무도 말할 수 있다 : 우리가 몰랐던 숲의 모습

10609 윤려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 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

얼마나 크게될지 나무를 베면 알수가 없죠”

-바람의 빛깔 중-



## #뿌리

### 이 강연의 시작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수만 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면서 숲은 인간의 가족이 되어주었고, 보금자리와 친구의 역할을 해주면서도 기꺼이 먹을 것을 내어주는 사냥터가 되어주었다. 인간은 숲에서 발전했고 현재 문명을 발달시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도 숲에서 자원을 캐오고 또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숲에서 해와 나무가 만들어주는 반짝이는 그늘에서 바람과 새와 물이 들려주는 노래를 들으며 다시 한 번 힘을 낸다. 숲은 여전히 아낌없이 주고 있음에도 숲에 사는 크고 작은 생물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 작지만 인자하고 크지만 처절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다. 움직일 순 없지만 너무나 역동적인, 어쩌면 나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나무의 이야기를 말이다.

## #수간 : 나무의 줄기

### 뿌리에서 꽃으로

나무에게도 우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그들의 생존 방식 중 하나이다. 나무가 가지가 잘리고 수간에 이끼가 둘러싸이면 광합성을 하지 못해 죽게 된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독일의 산림과학자인 페터 블레벤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담당하고 있는 숲을 걷다가 이끼가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게 된다. 그는 그것이 바위라고 생각했고 몇 년이 지나서야 그것이 나무, 그것고 살아있는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주위의 나무가 죽어가는 나무에게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의 이야기만으로는 나무가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단정 짓기는 힘들다. 도대체 어떻게 주위에 죽어가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와준 것인지, 왜 도와준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 나무의 언어

01 향기 &amp; 후각



02 미각



03 뿌리 &amp; 균류



04 청각



나무가 소통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이다. 향기와 후각, 미각, 뿌리와 균류, 청각. 이 네 가지 모두 흔히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다. 나무에게 코, 입, 귀 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믿기지 않는 이 이야기의 진실은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산 아카시아 나무는 기린이 먹는 나무 중 하나이다. 이 나무는 기린이 잎을 먹기 시작하면 앞에서 기린에게 위험한 독극물질을 내뿜는다. 이 과정에서 신기한 점이 있다면 잎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 기린이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약 100m 이상 이동한 후 다른 나무들의 잎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산 아카시아에게서 나는 독극 물질의 향을 다른 나무가 인식하고 같은 물질을 내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100m 가량 이동한 후 다시 잎을 먹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먹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에게 적합한 유독물질을 내뿜을 수 있다. 그 예로 소나무는 자신의 잎을 먹는 애벌레의 침을 구분하여 그의 천적을 불러들이는 향을 내뿜는다. 미각을 통해 자신을 먹고 있는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다. 나무의 세 번째 언어 방식은 뿌리와 균류이다.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는 뿌리와 균류의 크기를 듣고 난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뿌리에 비해 균류라는 단어는 생소할 수 있는데, 곰팡이, 버섯 등이 균류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섯은 영양분을 저장하는 낙타의 혹같은 존재이고,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균사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버섯은 고래와 코끼리의 크기를 넘어서 축구장 1220개의 면적만큼 크다. 이렇게 큰 균류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어주고 나무들은 뿌리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게 된다. 나무에게는 청각 또한 존재하는데,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유리관에 있는 두 개의 나무 중 한 나무가 특정 주파수 (약 220 헤르츠) 의 탁탁 거리는 소리를 내면 다른 나무의 뿌리가 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아직 우리의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탓에 어떤 원리를 통해 이러한 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 그들만의 이야기를 꾸려가고 있다.

이러한 나무들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무로는 유럽너도밤나무가 있다. 유럽너도밤나무는 주위의 친구들과 자신의 자식을 잘 챙기기로 유명해 숲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유럽너도밤나무는 주위의 아픈 나무가 있거나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한 나무가 있으면 뿌리와 균류를 통해 자신이 광합성해 만들어낸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또, 자식이 너무 빨리 자라지 않도록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자식들의 광합성을 방해한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유럽너도밤나무는 숲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동학대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여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나무는 인간처럼 100년만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다. 몇 백 살은 기본이고, 1000살을 넘게 사는 나무 종도 있다. 하지만 너무 빨리 하는 성장은 빠른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너도밤나무는 그늘을 드리우고 영양분이 부족해 자식이 죽지 않도록 꾸준히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나무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해야 모두가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바람을 이겨내는 것은 서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이웃한 나무는 특정한 벌레가 근처에 있음을 알려주고 혼자서는 절대 조절할 수 없었던 습기와 이겨낼 수 없었던 바람은 수백, 수천 그루의 나무가 숲을 만들어내고 나서는 간단한 일이 된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하는 법을 터득했다.

이렇게 나무들은 자기들 나름의 규칙과 생활을 통해 생존하고 진화해왔다. 하지만 인간은 나무가꾸기라는 명목 아래 그들의 삶에 개입해 왔다. 이에 독일의 산

림과학자 페터 블레벤은 도축(屠畜)이라는 개념을 빌려와 나무 가꾸기가 아닌 도목(屠木)이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자로 줄을 맞춰서 심는 현대의 방식은 서로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나무들로부터 연결망을 파괴하고 단지 단기간에 성장시켜 잘라낼 나무들을 찍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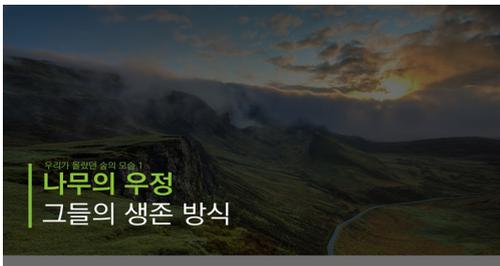
### 나무가 전하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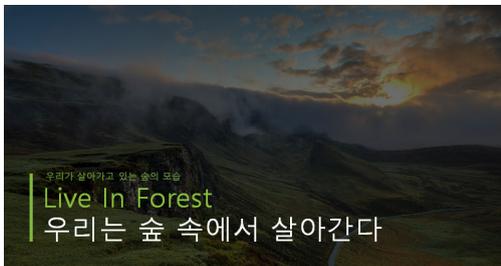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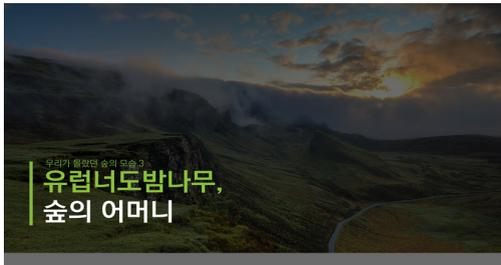


내가 대신 전달해주는 나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이번 열린 연단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남아있다. 위기 상황일 때 서로 도와주고 자신과 다른 종류의 존재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무언가를 내어주는 나무들에게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바로 그 메시지 말이다. 우리는 무한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는 나무들의 세계에서조차 마찬가지다. 더 많은 햇볕을 만끽하기 위해서 자신을 열심히 가꾸는 그들은 자신을 가꿀 줄 알고 또 그렇게 강해져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존재가 되고 서로 도우며 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된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바는 단순히 이러한 숲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들의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배워가면서 숲을 구성하는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또 인천국제교라는 커다란 숲의 일부인 12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번 열린 연단을 통해 다들 자신만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열매  
이 열린연단의 별미

- Q. 근데 나무들은 항상 서로 돕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경쟁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서로 돕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 A. 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숲은 무한경쟁 사회입니다. 가지로 주위 나무의 잎을 다 쳐내기도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마치 우리의 사회처럼요. 나무들은 각자 자기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더 높게, 더 넓게, 더 빨리 자라기 위해 애쓰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경쟁력을 키우면서도 함께하는 것이 자기자신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나무의 모습이겠죠.





# 불편한 편리함, 세금

10605 서효원

“자,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가져가는 것에서 누리는 것으로요.”



“또 세금이야!”

부모님 혹은 주변 어른들이 한번쯤 이런 한탄을 하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관세, 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거기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도대체 국가는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서 국민들을 불편하고 “못 살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세금은 불필요한 돈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뺏어가는,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돈일까요? 제가 말하는 세금의 의의와 납세의 의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세금을 “내고 싶어질 지도” 모릅니다!



## #BACKGROUND

### 세금이 숙제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저는 세금은 불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만연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고쳐보기 위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금은 종종 국가가 뺏어가는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아예 세금이 없다면 자유로운 시장에서 모든 결정이 효율적으로, 후생을 해치지 않고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지우는 숙제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강연에서 저는 세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구매하기 어려운 서비스와 재할르 모두가 함께 구매하는 공동구매의 한 형태라는 관점을 내세우며 국가가 뺏어갔다고 생각하던 불편한 돈, 세금이 그보다 훨씬 큰 가치, 즉 편리함으로 개인에게 돌아옴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 #CONTENTS

### 불편한 편리함, 세금: 그 역설에 대해

**여러분은 지금부터 27살, 월 350만원 월급을 받는 사회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세금”에 대해 강연할 서효원입니다. 여러분, 세금에 대해 이야기할텐데, 무소득자인 17세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엔 공감이가 잘 안될 수 있으니 청중 여러분을 지금부터 10년 뒤인 27살, 월 350만원을 받는 사회인으로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의 근로 소득세는 20만원, 그러므로 실 수령액은 330만원인 것을 명심한 뒤 이제 세금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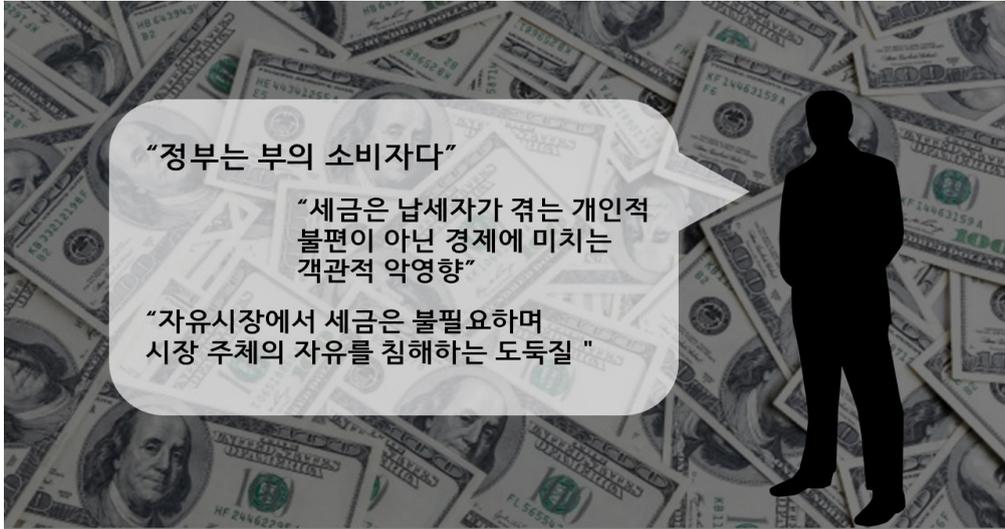


### “세금은 도둑질이다?”

여러분은 원래 35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었지만, 중간에 국가가 나타나 20만원을 여러분에 주머니에서 가져갔네요. 자 이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제일 먼저 제 주머니에서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간 국가를 도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미디어나 통계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금을 “뺨”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하는, 가능한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낼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책까지 써가며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세금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우리는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면세점에서 즐거워하며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국민 모두는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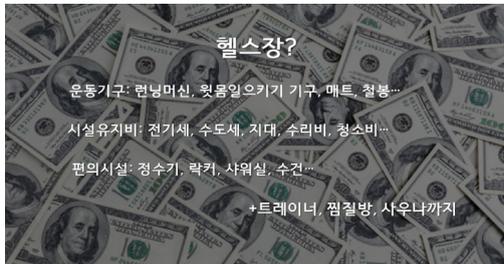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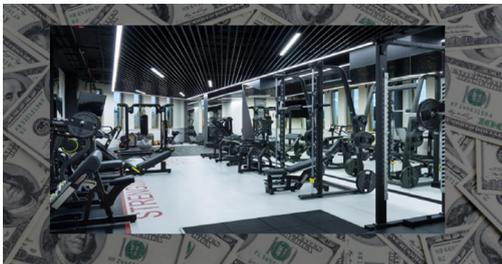


단순히 내 돈을 내고 싶지 않아서 세금을 싫어하는 게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시장지상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인데요. 이들은 “정부는 부의 소비자다”, “세금은 납세자가 겪는 개인적 불편이 아닌 경제에 미치는 객관적 악영향이다.”, “자유시장에서 세금은 불필요하며 시장 주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둑질이다.”라며 세금을 불필요한 것을 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해꾼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을 풀어봅시다. 과연 세금,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 “헬스장에서 찾은 세금의 미학”

여러분, 헬스장 가보셨나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헬스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한 번 헬스장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헬스장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설, 서비스, 재화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운동기구로는 런닝머신, 윗몸일으키기 기구, 철봉, 매트, 역기 등등이 있을 거고요, 편의시설로는 정수기, 락커, 샤워실, 수건 등이 있을거고, 헬스장에서 이것들을 다 관리하려면 전기세, 수도세, 지대, 수리비, 청소비, 시설유지비까지 정말 가지각색 다양하고 돈도 꽤나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헬스장이 경기도 모처에 있는데 3개월에 8-9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헬스장을 가지 않고 이것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면, 3개월에 8-9만원 가지고 될까요? 런닝머신 100만원 이상이고요, 작게는 매트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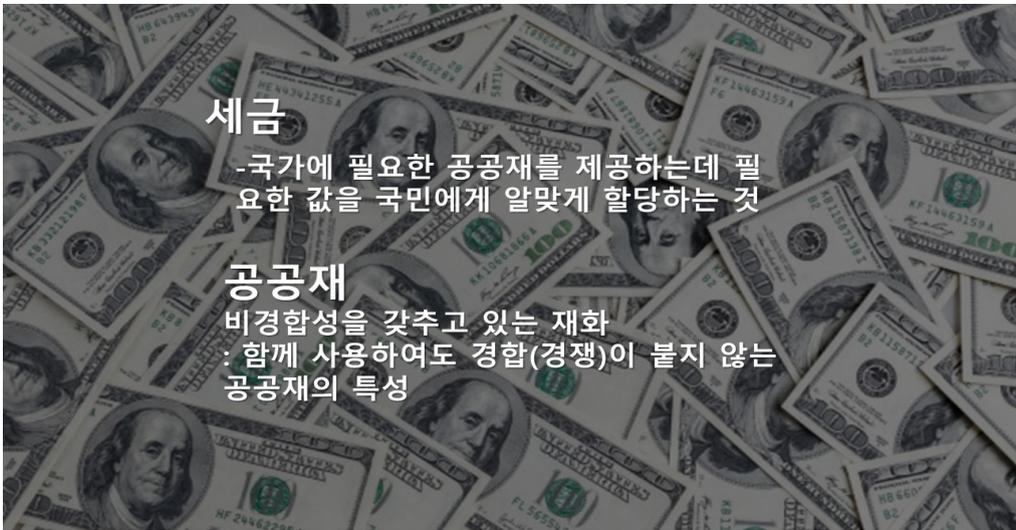
철봉, 아령, 윗몸일으키기 기구도 사야하는데 여기에 트레이너 선생님까지 모시려면? 한 달 월급 330만원이 그대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가져가는 것에서 누리는 것으로요.

이 헬스장은 국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헬스장 이용료는 세금인 것이고, 여러분은 개인은 절대 만약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할 재화와 서비스를 헬스장에서 누리고 계신 것이죠. 세금을 이용해 국가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 재화와 서비스를 나열해 봅시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시내 곳곳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지하철, 항상 도시를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환경미화원, 언제든지 어디든 안전하게 지켜주고 국가 내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 검찰, 법원, 24시간 어디든 신고를 받으면 바로 출동하는 관, 국민들이 아플 때 진료비와 약값을 보조해주는 건강보험, 국민 누구나 교육해주며 국가를 발전시킬 인재들을 특별양성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 생활과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는 평생학습관과 청소년수련관까지 게다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교복, 오늘 먹은 점심, 매 시간 보는 교과서까지. 이 모든 재화, 서비스를 개인이 과연 부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과연 만약이라는 가정을 상상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에게서 얼마를 가져갔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치는 얼마인가요? 20만원이라는 불편함은 이미 우리가 누리는 훨씬 큰 편리함으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 세금

- 국가에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값을 국민에게 알맞게 할당하는 것

### 공공재

비경합성을 갖추고 있는 재화  
: 함께 사용하여도 경합(경쟁)이 불지 않는 공공재의 특성

제가 생각해본 세금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에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값을 국민에게 알맞게 할당하는 것. 그리고 공공재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추고 있는 재화로써 여기서 비경합성이란 함께 사용하여도 경합(경쟁)이 붙지 않는 공공재의 특성을 말합니다. 공공재 중 하나인 국방이나 치안을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만약 북한이든 도둑이든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 업체라던지 보안 업체를 고용한다면 그 돈은 무지막지하게 클 것입니다. 이 때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국가가 제공하고 그 부담을 세금으로 국민이 나눠서 한다면 1인당 부담하는 돈은 적고 우리는 모두 경합하지 않는 채로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세금은 이렇게 작동해 국가와 공동체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 강연의 제목인 “불편한 편리함, 세금”에 대해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낼 때는 불편하지만 알고 보면 편리함이었던 세금. 세금을 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인국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EPILOGUE

Q1. 래퍼곡선에 의하면 세금규모가 계속 커지다보면 종형과 같이 결국 조세수입은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세금이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 A. 세금의 좋고 나쁨은 절대량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저는 좋은 세금, 나쁜 세금을 판단할 때에는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금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금으로 제공할 재화의 수요와 필요성, 현재 국민들이 그 재화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세금은 그 재화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 둘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해 세금이 잘 걷히고 잘 쓰이고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나라의 사정에 따라, 국민의 선호에 따라 세금이 알맞게 걷히고 쓰이는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금의 편익, 편리함이 비용, 불편함보다 분명히 크고 사회나 국가 같은 공동체의 입장에서 세금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AFTER EPILOGUE. 강연 후 질의응답의 소중함

강연 후 질의에 답변할 당시에는 경제학과 조세에 대한 깊은 공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라 사실 질문자가 언급한 래퍼 곡선이 뭔지도 들어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전문적인 근거로 무장한 질문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대답한 거 같아서 계속 아쉬움이 남아 후에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경제학 교과서를 읽고 제가 강연한 세금과 조세에 대한 더 깊고 전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질문자가 언급했던 래퍼곡선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한 이후에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 질문이 아니었다면 스스로 더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질문은 청중의 생각을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강연자 스스로를 성찰한 후 더 큰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매개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린연단에 도전하는 인국인 여러분도 질문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질문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 #FEELINGS

## 공동체에 나를 더할 수 있었던 순간

## 1. 강연을 한 어제의 인국인이 말하는 열린연단

열린연단은 제게 정말 큰 산이자 1년 내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한 모래주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래주머니를 달고 열심히 달리고 나서 모래주머니를 뺐을 때 다리에 튼튼한 근육이 붙듯 열린연단을 통해 1년동안 성장한 나를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피피티를 만드는 법을 더 고민해보기도 하고, 제 발표 태도를 깊게 검토해 볼 기회이기도 하고, 제 생각이나 가치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고민하며 성장한 점도 있지만 강연 이후 질의응답과 피드백에서도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던 제 발표 시의 모습을 적어주기도 하고, 서로서로 발전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기도 하고, 노력한 친구에게 수고했다고 좋은 말을 적어주는 친구들 덕분에 더 성장하고 더 나은 발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연단과 열린연단 베스트에 도전했던 건 정말 큰 추억이자 성장 기회였습니다.

## 2. 강연을 할 오늘의 인국인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

처음 강연이라는 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내가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지, 어떤 말을 해야 청중이 주의 깊게 들을지, 입학 한 첫날부터 고민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무수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자!'인 데요. 열린연단은 내가 전교생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이야기를 하면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또 단순한 이야기보다는 청중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가지고 강연을 하면 강연이 끝난 뒤에도 청중과 연속적인 의견 교환이 일어나는 더 뜻깊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경험이나 의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답, 더 나은 대안 더 나아가 더 나은 공동체를 찾아가는 시발점이 열린연단이 된다면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열린연단이 되지 않을까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를 "우리"에 더할 수 있는 열린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말을 잘하고 싶나요?

10311 이도윤

“세상에 가치 없는 말과 의견은 없습니다.  
모두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 번지르르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감싸기 급급하여 어느새 ‘말’은 포장의 수단이 되어버린 세상 속, 사회를 이루고 있는 말에 대한 새로운 고찰과 말을 ‘잘’하는 비결을 소개함으로써 통해 세상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강연자는 제안합니다. 편안한 사적 말하기에서부터 힘 있는 공적 말하기까지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며 강연자의 경험적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비결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청중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며 청중들의 도전을 격려하면서도, 따뜻한 말이 오가는 대화 분위기를 강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BACKGROUND

### 17년 인생, 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 ‘꿈’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된 후, 당시 ‘말 잘한다’는 소리를 깨나 듣던 저는 아나운서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꿈은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여전히 아나운서입니다. 약 10년간 일상 속에서 ‘말’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경험적 지식을 쌓아왔기에 언젠가 꼭 한 번쯤은 말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인 지식을 쌓은 뒤 발표하여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고등학교의 입학 이후 여러 다양한 수행평가 및 대회에서 ‘말’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단편적인 지식을 벗어난 실질적 경험을 통해 그 중요성에 대해 몸소 실감하며 함께 이 과정을 겪고 경험한 친구들에게 이에 대해 알리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기에 해당 주제를 선택하여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 #CONTENTS

### 하버드에서 인정한 말하기 비법

#### 나의 비결을 하버드에서 인정해준다?

물론 저는 약 10년간 ‘말’에 대해서 또래보다는 많은 고민을 해온 만큼, 말의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싶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얻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할 것 같아 저의 비결을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임팩트 기간 중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학교 측에 저의 비결을 인정해줄 것을 강요했다거나, 혹은 마이클 센델 교수님께 수백 통의 이메일을 전송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며 저의 경험을 통한 지식에서 더 나아가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전달해드리고자 도서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을 바탕으로 저의 경험적 지식을 재해석하여 본 강연을 구성하였습니다.

#### ‘말’은 무엇일까?

말을 잘하는 ‘비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말’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는 2인 이상의 개인이 모여 이루는 집단을 뜻합니다. 사회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인 셈이기에 의사소통은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한 마디로 사회는 말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셈이기에 저는 ‘말’을 ‘사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 **말을 잘하는 ‘비법’? : 함께 대화하고 싶은 상대가 되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중요한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비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연구해온 말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공적 말하기의 방법과 사적 말하기의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적 말하기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를 중심으로 첫 번째 비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목은, 말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발화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대화에 있어서, 특히 사적인 대화에 있어서 발화자가 지닌 힘은 말 그 자체의 힘을 뛰어넘을 만큼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한 말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이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사적 말하기에 있어서 잘 짜인 문장을 구성하는 것보다 대화를 함께하고 싶은 상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얼핏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매력적인 대화 상대의 첫인상으로 단 3초 만에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3초 만에 당신의 첫인상을 완전히 바꿔줄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인사’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당신에게 웃으며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네주는 친구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당신을 무심하게 지나치는 친구 중 어느 친구가 더욱 말을 걸고 싶어지고, 대화 상대로 함께하고 싶어질까요? 조심스레 예상하건대, 여러분 중 대부분은 전자의 경우를 대화 상대로 함께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인사는 작고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대화의 물꼬를 틀 확률을 높여주며 여러분을 대화하고 싶은 상대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실 이 ‘인사’는 다음 소주제인 ‘상대가 말하고 싶게 자극하라’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먼저 인사를 함으로써 첫인상을 친근하게 전환하여 말을 걸기 쉽게 하는 것이 바로 상대가 말을 하고 싶게 자극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 이외에 상대가 말하고 싶게끔 하는 또 다른 대화의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과 나의 공통 관심사를 대화의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가 상대와의 대화의 시발점이라면, 공통 관심사를 대화의 주제로 선정하

는 것은 시작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인사를 통해 호감형으로 자연스럽게 시작된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공통 분모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매끄러운 구성은 당신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매력적인 대화 상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 말을 잘하는 '비결'? : 부드러운 힘

'공적 말하기'에서의 비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호프는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친 말로도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체호프의 말과 같이 제가 제시하고픈 공적 말하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부드러운 힘'입니다. 공적 말하기는 주로 연설, 강연 등과 같이 상대를 설득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개되기에 타당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공적 말하기에서 주장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며 청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비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생각될지도 모르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말에 논리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미 당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에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우스워 코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봅시다. 그간의 무수히도 많았던 연설, 강연, 토론 등의 공적 말하기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진정 탄탄한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쳐왔나요? 그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말을 무심코 던져가며 그럴싸한 포장에 집중하지는 않았나요? 공적 말하기에서 청중은 연설자를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설자는 계획에도 없던 말을 내뱉기도 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인국인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말솜씨를 지니고 계시기에 해당 비결이 엄청난 걱정거리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간의 말하기에 대한 작은 점검 차원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점검은 이만하고, 본격적인 비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외로 다가올 수 있는 다음 비결은 바로 '문제가 될 만한 화제는 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논리 구조를 쌓아 올렸음에도, 문제가 될 만한 화제는 그저 피하고 말자니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것은 대화 속에서 문제가 될 만한 화제라고 느껴지는 주제는 무조건 피하거나 외면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가 될 만한 화제에 대한 상대방과 나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고, 주제를 계속해서 문제 삼으며 나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화제를 벗어나는 것이 공적 대화에 있어서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해 해당 대목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리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의견이 충돌하는 주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당 상황과 공존할 수 없는 해법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나뉘는 의견 속에서 공통점을 찾기로 모래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맞먹는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 한 번 고르고, 대화에 대해 조금만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결국, 모든 대화에는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소한 의견 차이에 가려진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생각보다 쉽게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아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결국은 ‘자신감’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늘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죠! 지금껏 열심히 소개드린 모든 비결들을 뛰어넘을 만큼 중요한 마지막 비결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말이더라도, 첫인상이 인상적이며 매력적인 대화 상대로 자리매김 하더라도, 목소리를 떨며 자신 없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모습은 완벽히 준비된 당신의 배경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말과 의견은 없습니다. 모두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당당해집시다! 물론 여기 계신 인국인 여러분들은 치열한 면접을 뚫고 당당히 합격증을 거머쥐시며 실력을 입증받은 분들이시기에 어느정도의 자신감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도함은 언제나 독이 될 수 있기에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 기숙사 학교의 특성상 친구와의 대화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삼가는 것이 어떨까요? 적당한 자신감으로 나와 주변 친구들을 빛내는 말들이 오가는 인천국제고등학교를 기대하며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발표 자료

말  
을 잘하고 싶나요?  
10311이도플

말  
이런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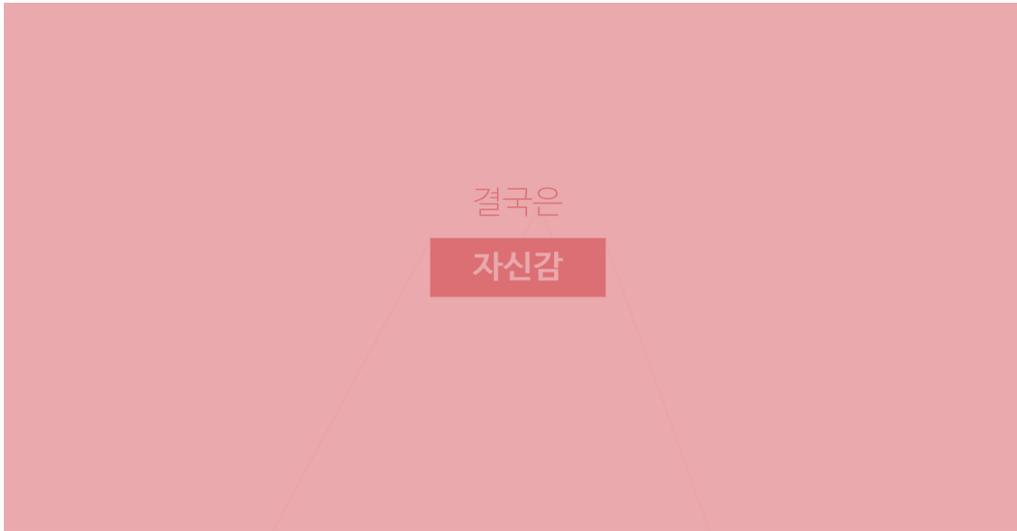
말을 잘할 수 있는 **비법?**

같은 말이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3초 만에  
첫인상 바꾸기

문제될 만한  
화제를 피하라

의견이 나눌 때에는  
공통점을 찾아라



#EPILOGUE

Q1. 공통점이 전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름을 인정하자!**

때로는 정말 접점이 보이지 않는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나눌 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통점 찾기’를 제시한 것이기에, 행여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언제까지고 침 튀기는 공방전을 계속하며 소모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인데요, 이때에는 상대방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역시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과 같이 나와 다른 의견을 공유하며 되려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경험으로 삼는다면, 사고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FEELINGS

‘Power of Speech’

말의 힘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게 해주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말이기예, 말로 사회를 전달하는 것을 꿈꾸는 세계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세와 언론의 윤리 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공적 말하기뿐만 아니라 사적 말하기의 내용을 준비하며 기숙사 학교의 특성상 친구 사이에 수없이 오가는 말들 속에서 무심코 내뱉었던 한 마디 한마디가 지닌 엄청난 힘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매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상기시키고 자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중들과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제안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더더욱 보람찼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 10조원을 증발시킨 조너선 아이브

10124 최재현

“제대로 적용된 디자인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직업을 만들어 내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뉴스를 통해 경험한 루이비통과 애플의 사례를 통하여 강연자는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을 주장합니다. 디자인 경영의 정의부터 디자인 경영을 활용한 대표적인 기업의 사례, 디자인 경영에 사용된 경제적 효과, 디자인 경영을 삶에 적용시킨 이미지 마케팅까지 디자인과 경영에 관한 모든 부분을 강연하면서 21세기에서 디자인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곧 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강연자는 피력합니다.



## #BACKGROUND

### 디자인과 경영? 그게 무슨 관련인데?

저는 중학생 때부터 옷을 좋아하고 명품, 패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가 2019년 LOUIS VUITTON의 신상 제품들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바로 기존의 클래식하고 고풍스러운 제품들이 사라지고, 스트릿한 느낌의 제품들을 LOUIS VUITTON이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트릿 브랜드의 대명사였던 OFF WHITE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버질 아블로가 LOUIS VUITTON으로 영입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달라진 디자인 때문에 저는 당연히 LOUIS VUITTON의 매출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예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새로워진 LOUIS VUITTON은 상승장구하였고 전년 대비 매출이 15%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마케팅이나 구체적인 경영 전략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 하나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업의 매출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디자인 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의 퇴사로 애플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10조 원 이상이 증발하였다는 뉴스를 접한 후, 디자인과 기업 경영의 관계성, 그리고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 보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디자인이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꽤나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10조 원을 증발시킨 조너선 아이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CONTENTS

### 10조 원을 증발시킨 조너선 아이브

#### 10조 원을 증발시킨 조너선 아이브

2019년 6월 28일 애플의 누군가가 그동안의 일을 그만두고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식을 접한 각종 언론사는 이 사람의 퇴사 소식을 았다투어 전하게 되었고, 이 사람의 퇴사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자 애플의 주가가 다음날 한순간에 10조 원 이상이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단 한 사람의 퇴사 소식이 아주 잠깐이지만 애플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주가를 한순간에 10억 이상 증발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애플의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등을 디자인한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였습니다. 조너선 아이브는 1992년 애플에 입사한 뒤 1998년 발매된 아이맥, 2001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 2015년 애플워치 등의 디자인을 완성하면서 애플이 디자인적으로 다른 핸드폰과는 차별화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조너선 아이브의 디자인을 통해 애플은 전자 기기를 제작하는 기업 중에서도 디자인 덕분에 좀 더 다른 기업들의 제품보다 명품 같다는 평가를 줄곧 받아왔고, 애플만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많은 호평을 얻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너선 아이브의 퇴사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앞으로 디자인의 심미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고, 실제로 하루 만에 주가가 10조 3995억이 증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디자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니다. 특히 경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 디자인 경영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의상, 공업 제품, 건축 따위의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는 이렇게 핸드폰, 자동차와 같은 제품들과 신발, 옷과 같은 의류 디자인도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제품이나, 자신의 개성 혹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불과했던 디자인은 2010년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소비에도 WHY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퍼져 나가면서 하나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인 경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디자인 경영이란 디자인을 바꾸거나 기존의 없던 디자인을 만들어 내거나 기업 고유의 디자인을 생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서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경제적 효과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 경영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베블런 효과입니다. 베블런 효과란 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허영심 때문이죠. 기업들은 이러한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제품의 디자인을 좀 더 고급지게 높은 퀄리티로 만들고 가격을 높이 책정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 제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시하기 위해 그 제품을 사게 됩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베블런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물효과와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속물효과란 희소성이 있는 재화를 소비해 자신과 타인을 차별화하고,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려는 소비 행태를 의미하는데 특이하게도 자신이 소비한 물건이 유행을 타면 그 물건을 버리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밴드웨건 효과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대중적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차별적인 디자인을 생산해 내고, 이를 통해 제품의 차별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은 곧 기업 고유의 디자인이 되고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더 이상 차별적인 디자인을 생산하지 않아도 높아진 기업의 브랜드 가치 덕에 그 제품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애플의 디자인 경영

디자인 경영을 가장 잘 활용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 최고의 핸드폰 기업인 애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등 애플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얻어왔고 이는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애플은 전자기기 브랜드 중에서도 명품과 같은 브랜드로 여겨지게 되었고, 이는 특히나 보여지는 것과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2,3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 경영

디자인 경영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로 명품 브랜드들의 디자인 경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디자인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루이비통을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

두 루이비통이라는 명품 브랜드를 알고 계신가요? 루이비통은 ppt에 보이는 것처럼 모노그램 패턴이 들어간 가방이나 의류가 주류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고급진 모노그램 패턴 덕분에 루이비통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루이비통의 명품으로써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전 이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오프화이트의 수석 디자이너로 있었던 버질 아블로가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가 된 것인데요. 클래식 하면서도 고급진 디자인을 선보였던 루이비통과는 다르게 버질 아블로는 오프화이트에서 스트릿 하면서도 힙한 디자인을 주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버질 아블로가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면서 루이비통의 디자인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ppt에 나와있는 가방은 그냥 여러분도 루이비통 가방 하면 떠올릴 만한 그런 클래식한 가방입니다. 그런데 버질아블로가 수석 디자이너가 된 뒤에는 이 가방이 변하게 됩니다. 훨씬 밝은 색감에 홀로그램을 통해 빛이 반사되게 하였고, 재질은 반투명한 재질을 사용했죠. 그동안의 루이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디자인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구매자들은 조금 더 젊어지고 클래식한 디자인에서 벗어난 루이비통에 더 열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매출이 전년 대비 15%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15% 상승했다는 것은 비율이 매우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루이비통과 같은 전 세계적인 기업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15%가 상승했다는 것은 매우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디자인 하나를 바꾸는 것을 통해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더불어 브랜드의 가치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에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디자인의 제품을 굳이 생산하지 않더라도 높아진 브랜드가치 덕분에 그 제품 역시 인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 이미지 메이킹

저는 열린 연단을 준비하며, 이런 디자인의 효과를 사람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바로 이미지 메이킹인데요

여러분은 개그맨 유재석씨와 기업 오투기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착하다, 성실하다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

데요 이는 그동안의 좋은 행실과 자신의 성품을 통해 소비자들과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옴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버닝썬 사건의 승리, 정준영 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각종 방송프로그램과 꾸준한 음반 활동을 하며 대중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추락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게 되어 스스로의 가치를 저하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은 제품의 품질을 높여 더 많은 이윤을 남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우리의 삶속에 적용시켜 본다면, 스스로의 이미지를 디자인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디자이너 폴 스미스는 “제대로 적용된 디자인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직업을 만들어 내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디자인의 효과를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 #EPILOGUE

### Q1. 다른 사례는 없나요?

#### A. 다름을 인정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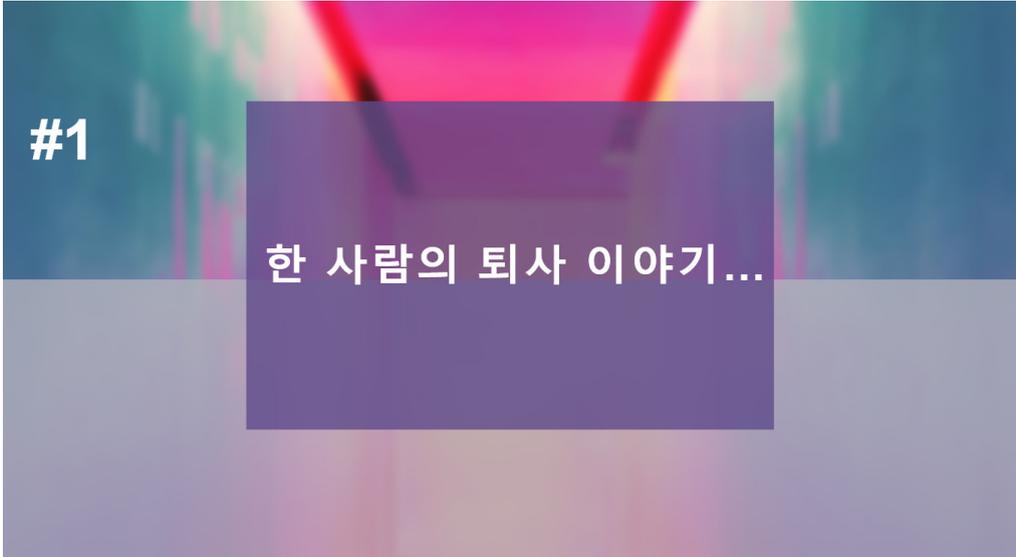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디자인 경영을 이용한 또 다른 사례 중 하나로 샤넬을 들 수 있습니다. 샤넬의 창시자인 코코 샤넬은 디자인 경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녀는 당시 여성의 핸드백에 남성성을 상징하고 드러내는 체인을 결합시켜서 체인백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샤넬의 가방은 당시 유행을 중시하던 사람들에게 매우 새롭게 다가왔고 한순간에 엄청난 유행을 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샤넬이라는 디자이너를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샤넬의 가치가 높아져 그 이후 만들어진 제품들은 이미 높아진 샤넬의 명성덕에 더욱 비싼 값에 팔리고 또한 더 큰 유행을 타게 되었습니다.

## #FEELINGS

### Creativity and Design

열린연단을 준비하고 디자인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는 디자인과 독창성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독창적이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는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한 디자인은 기업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창성은 단순히 디자인에서만 부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Creativity, 즉 창조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같은 문제를 다방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이러한 창조성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할 수 있어 곧 자신의 개성이 되며, 독창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기업이 자신의 기업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남과는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디자인 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지만, 강연을 준비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강연을 마치고 나서 창조성의 중요성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무엇인가를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창조적인 생산능력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열린연단을 마치면서 디자인 경영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중요해져가는 창조성과 창의성의 중요함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달으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참고자료 ※



# . 1  
#design 10조원이 증발한 애플의 주가...



# . 1  
#design 10조원이 증발한 애플의 주가...



# . 1  
#design 10조원이 증발한 애플의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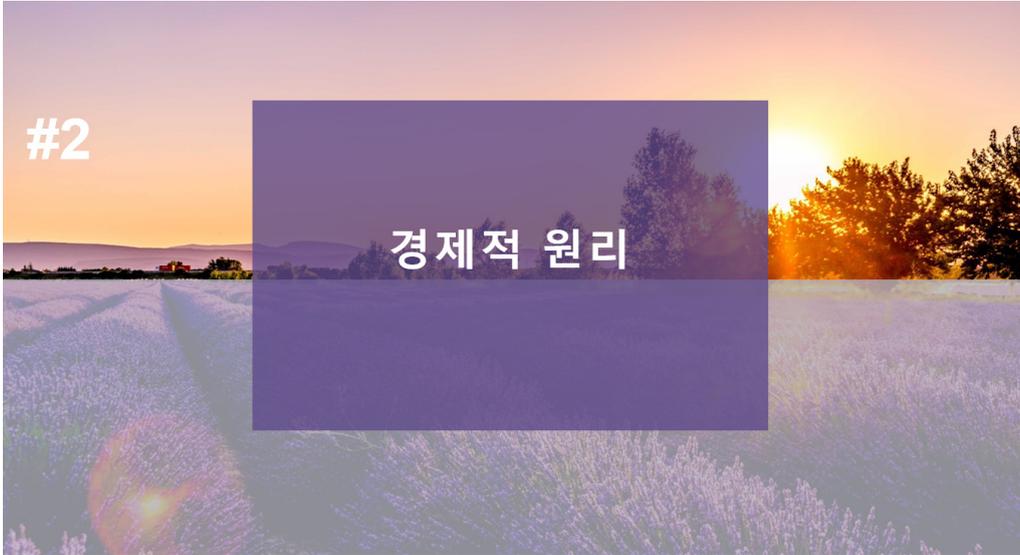
그 사람은 바로 Apple의 iPhone, iMac, iPod등을 디자인한 Jonathan Paul Ive이다.  
Jonathan Paul Ive이다.

Jonathan Ive는 1992년 애플에 입사한 뒤 1998년 발매된 아이맥(iMac), 2001년 아이팟(iPod), 2007년 아이폰, 2015년 애플워치 등의 디자인을 관장하면서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혁신적인 업적을 이룩했다.

# . 1  
#design 10조원이 증발한 애플의 주가...



그에서 많은 연인들이 작은 화면에 남겨져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등 콘서트 무어의 회사로 3년 만에 연이듬을 포지티브 애플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시대로, 주가가 108.3,998% 뛰어 오른 것이다.



# . 2

#effect

# 경제적 원리



베블런 효과



속물 효과와 밴드 워건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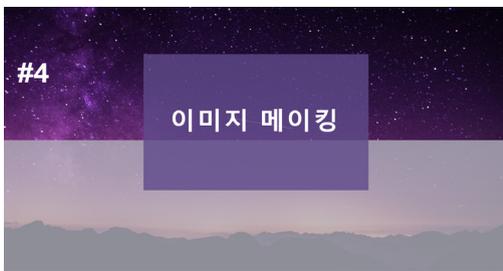
# 3 루이비통과 버질 아블로  
#change



# 3 루이비통과 버질 아블로  
#change



루이비통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프랑스의 최고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버질 아블로는 루이비통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며, 루이비통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버질 아블로는 루이비통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버질 아블로는 루이비통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 4 유재석과 오뚜기, 그리고 버닝썬...  
#image



#5

# Design

제대로 적용된 디자인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직업을 만들어 내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디자이너 폴 스미스-



## Sociology

박제이 '어디까지 보고 있으신가요?'  
안소현 '청년실업의 주인공, 아무도 모른다'  
채윤희 '다음은 당신입니다'

## Psychology

김미소 '내 안의 프레임: 나를 바꾸게 하는 것'  
최현승 '내 인생의 Spotlight'

---

# ethics

---

Sociology & Psych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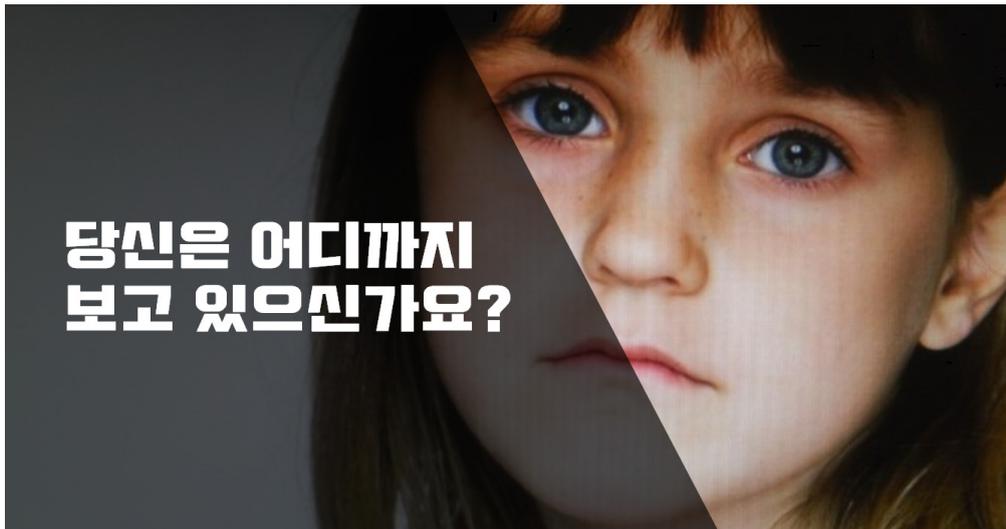




## 어디까지 보고 있으신가요?

10206 박제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외면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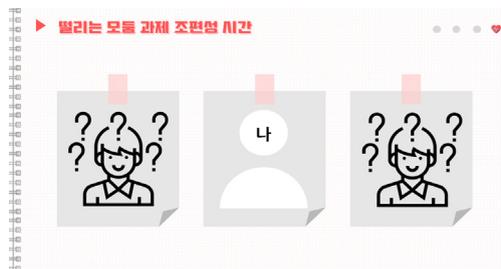
자폐증을 앓고 있는 친구를 알게 된 경험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와 천재적인 자폐증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장애인을 향한 우리의 시선, 그 아래 ‘배려’라는 명목 하에 무심코 외면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에 대해 강연자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통해 강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청중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놓아줍니다. 강연자는 배려해야 할 존재 너머 함께 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 봐야하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어디까지 보고 있으신가요?’ 그 날의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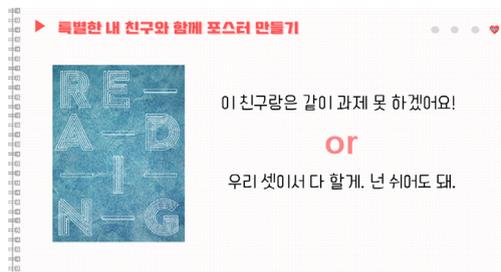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눈을 만들어 드리고자 강연을 진행하게 된 강연자 인천국제고등학교 12기 박제이입니다. 강연이 끝날 때 즈음 분명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사과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많은 과제들에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 강연을 위해 과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친구들과 함께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모듬과제’를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조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조원으로 함께하기를 바라시나요? (잠시 청중의 의견을 들으며)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친구? 다정하게 조원들을 이끌 수 있는 친구? 다들 머릿속에 원하는 이상형의 조원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임의로 조를 구성해왔습니다. 자, 양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을 한번씩 확인해주세요. 그 친구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제를 진행할 조원입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고 오늘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여러분께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모듬원은 3명이 아닌 4명으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1명 남은 조원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떠올린 이상향의 조원일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 친구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조에서 오늘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 친구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적인 조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나요? 조금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나열한 이 친구의 특징이 바로 **자폐증의 증상 중 일부입니다**. 자폐증은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정신 질환입니다. 자기 자신에 비정상적으로 몰입한 상태를 말하는 ‘자폐증’. 이는 곧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친구와 함께 과제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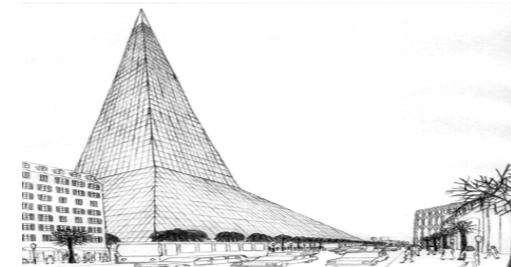
제가 준비한 과제는 바로, ‘영어 포스터 만들기’입니다. 과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친구와 같은 조로 과제를 진행하게 된 상황에서 대부분 2가지 선택지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우선 선생님께

다가가 정중히 “이 친구랑 같이 과제를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조원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드리거나, 혹은 친구에게 “우리 셋이서 네 몫까지 할게. 넌 걱정 말고 쉬어도 돼.”라고 이야기하며 **친구의 사정을 배려해주는 것**. 우리 학교 친구들은 모두 배려심이 넘치는 친구들인 만큼, 분명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배려 넘치는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학교 특수학급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우연히 얘기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 선생님께서 해준 이야기가 바로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특수학급 학생 중에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가 사실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진 아이라고 말씀해주셨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만을 봐왔던 저는 그 친구의 모습에서 ‘대단한 재능’은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뒤이어 해준 이야기는 저를 정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저 친구는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을 맞출 수 있어. 머릿속에서 항상 초를 세고 있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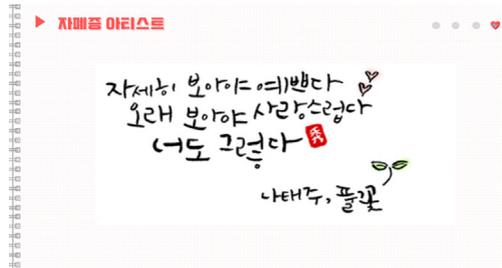
지금 이 방 안에 시계 없이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엄청난 집중력과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능으로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자폐증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재능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 자매줄 아티스트

**재능을 발견해준 사람의 존재**

어떠신가요? 섬세한 작품부터 빠져들 것 같은 색감을 가진 아름다운 그림들. 이 모든 그림은 바로 '자폐증 아티스트'의 그림입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것은 세계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단 20분 동안 헬기를 타며 본 대도시의 모습을 창문의 개수까지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스테판 윌서', 만 3세의 나이부터 놀라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신이 내린 색감'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림을 구매하고자 줄을 서는 예술가 '아이리스 그레이스'. 이외에도 많은 자폐증 아티스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능을 발견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테판 윌서의 어머니가 그러했고, 아이리스 그레이스의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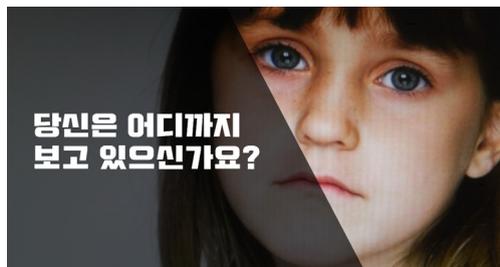
이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풀꽃' 같은 마음**입니다. 자세히, 오래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없이 함께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맞지 않는 발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석을 위해 달려가는 와중 속도가 너무 빨라 바로 옆에 놓여있던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행동 아닐까요?





넓은 사회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일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비로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듬어주며 거대한 하나로서 큰 업적을 일궈내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안에는 때때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에서 투른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자폐증’을 가진 이들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모둠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을 상상하며 ‘배려 넘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배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자폐증을 가진 친구의 재능을 알아가고, 그렇게 함께 과제를 수행하기보다 그저 평소에 우리가 하던 것처럼 내 일만 정확히 하고 넘겨주면 끝나는 보다 편한 선택을 위해 배려라는 핑계를 가져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놓쳐 버리고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외면해버린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의 능력을 모른 척 했고, 그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규정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돌봐줘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며 바라본 간판에서 우리는 가장 큰 글씨와 흐릿한 형태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가치 있는 정보는 대부분 놓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책하듯 주변을 둘러보며 풀꽃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보고 있으신가요?”

▷ 강연자가 바라본 ‘어디까지 보고 있으신가요?’

‘어디까지 보고 있으신가요?’ 강연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각을 트이게 할 너무나 익숙해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밝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과 달리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우리의 생각을 무겁게 만듭니다. ‘자폐증’이라는 익숙한 이름과 달리 그 속내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장애행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놀라운 재능들을 바라보며 문득 떠오른 우리의 ‘잘못된 배려’. 과연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들을 ‘배려’라는 명목 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그들의 재능을 찾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정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내가 대신할게. 너 쉬어도 돼.”라는 말이 사실 “저런 애랑 같이 작업하는 건 너무 어렵고 불편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는 이기심을 품은 말임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더 나아가 ‘배려’로 포장해왔습니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조금이나마 더 진정한 배려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짧은 강연 시간 탓에 준비한 이야기를 다소 빠르게 풀어나가느라 청중에게 더욱 전달력 높은 강연을 하지 못한 점, 더 전문적인 자폐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점 등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 강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하지는 못 했다라도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 속 우리에게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참 좋을 듯합니다.



# 청년실업의 주인공, 아무도 모른다

10112 안소현

“너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 취업해야 안정된 직업 가질 수 있어.”  
의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그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린 그곳을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청년실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어떻게 해야 청년실업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 강연자는 청년실업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밝힌다.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을 통하여 어떠한 과정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청년실업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를 통하여 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12기 친구들을 위하여 진심 어린 조언과 해결책을 남기고 있다.



## #BACKGROUND

### 직업을 얻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좋은 곳에 취직해야 한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적부터 그런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고,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미래 제 꿈을 이룬 저의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였 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 기사를 둘러보던 중, 현재 취준생이 많다는 내용이 언급된 기사를 발견하였고, 생각보다 이 토픽이 오랫동안 큰 화제로 대두되고 있 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명을 뽑는 회사에 약 450명의 지원자 가 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청년실업과 재학의 실무’, ‘정년연장 필요하지만 청년실업 선결돼야...’ 등 청년실업에 관한 현황과 관련된 기사들이 급증하 였습니다. 이에 저는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입시제도의 혼란을 넘어서 청 년실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 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여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 #EPILOGUE

### 딩동? ‘청년실업’이 도착하였습니다.

INDEX

- 청년실업이란?
- 현재 청년실업 상태, 원인
- 청년실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 청년실업, 당하기 싫다면?
- 그래서 우리는..?

#### 청년실업이란?

**청년 青年** ★★

1. 명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2. 명시 성년 남자

**실업 失業** ●

1. 명시 생업을 잃음  
2. 명시 경제 생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 못하는 상태

**청년 실업 (青年失業)** 신어  
<사회> <사회>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일.

#### 청년실업이란?



**우선, 청년실업이란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저는 이 단어를 청년과 실업, 두 부분으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성인 남자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실업’이란, 생업을 잃음,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냥 놀고먹는 백수도 이 실업자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단어를 합쳐 ‘청년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 하는 일’을 뜻합니다. 덧붙여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7.3%, 청년 실업자는 31만 3천 명으로 그래프 상으로 보면 2018년 12월 이래로 5월 열린연단을 했을 당시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현재로서 조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무시할 수 없으며 청년들에게 무서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PEOPLE’S STEPS



**PEOPLE’S STEP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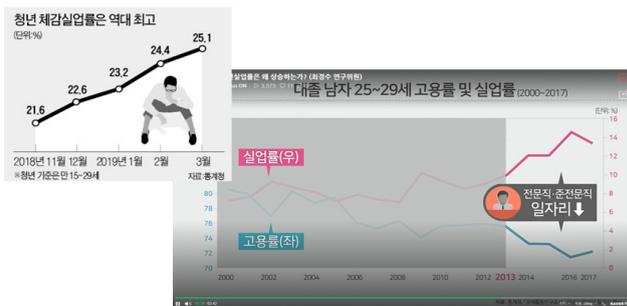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인천국제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거칩니다. 열심히 공부한다. → 학교를 졸업한다. → 다시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 → 직업을 얻는다! 아주 행복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직업을 얻지 못한다면, 따용의

상태가 올 것이고, 이 떠용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폭탄이 터지듯 청년실업이 발생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직업을 얻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회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죠? 이런 사실을 곧바로 보여줄 수 있는 뉴스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 상태는?

### 20대 실업자 4명 중 1명, 2년 후 취업 포기



5명 가운데 1명 여전히 실업자  
취업자 90% 2년 뒤에 취업유지  
"20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쟁인구에 머물게해선 안돼"

고용부 사업 성과 들여다보니  
15개월간 중소기업에 1조1800억 지원  
"올 청년고용 개선" 자랑했지만  
실제론 4명중 1명 실업자 상태  
3년 뒤 지원 끝나면 후유증 우려

###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 상태는?

사진 자료는 방금 보았던 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청년 일자리 32만 개를 창출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로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을 비교할 때, 3.5%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 실업자 중 4명 중 1명이 실업자', 여러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실업 상태를 언급하고 있고, 고용부 사업 성과를 들여다보니 15개월간 중기에, 즉 중간 기획에 1조 1800억 원을 지원하여 청년고용개선을 자랑했지만, 실업 상황은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FOCUS ON에서 참고한 그래프로 꺾은선그래프에서 분홍색은 실업률, 파란색은 고용률은 나타냅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고, 전문직, 준 전문직 일자리의 감소가 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하여,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많은 대책 속에서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청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의 원인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실'과 '직업이 곧 정체성이 되는 사회'를 이유로 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대학의 교육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피터 드러커가 이미 1970년대부터 그의 저서에서 줄곧 주장해온 바이며, 사회는 빠르게 변하는 데 비해 대학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하므로 사회의 요구에 대학 교육이 발맞추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철저한 사농공상의 계급 구조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도 직업이 곧 개인의 정체성이 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포장마차부터 시작해 식당 장사로 큰돈을 번 사업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단지 그 사람 돈 참 많이 벌었네, 하고 생각은 하겠지만 별로 청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례로 여기진 않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정체성 문화에 기인합니다. 대학생 때는 대학생 신분으로, 사회인이 되어서는 사회인의 신분으로 개인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즉 사회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조금이라도 좋은 기업, 좋은 직업에 몸담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사회가 철저히 직업 위주로 정체성을 부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의 원인은?



그렇다면.. 청년실업의 원인은?

경제성장률 감소



그렇다면.. 청년실업의 원인은?



그렇다면.. 청년실업의 원인은?

일자리 부족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인이 조금은 멀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PPT 화면을 통해 실생활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공감할만한 내용으로 다가가 볼까 합니다. 우선, 이 사진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류를 많이 하던 나라인 만큼 끼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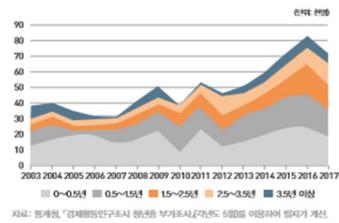
과 예상되는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감소'라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일의 양을 줄어둘게 하여 청년실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부족'입니다. 앞서 말한 경제성장률 감소와 엮어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청년들이 일해야만 하는 상황에 일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면 직장은 자연스럽게 고용하는 인원의 수의 폭을 줄일 것이고, 이에 따라 청년들은 직업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 청년실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 '청년실업 영향' 20대 건강 악화 추세... 우울증 4년새 20% 증가

청년층의 정신건강 역시 나빠지는 추세가 뚜렷하다. 공황장애는 20대 환자가 최근 4년 사이 65.0%나 크게 늘었다. 50대(46.0%), 40대(41.3%), 10대(38.8%), 30대(37.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은 다른 연령대에서 감소한 것과 달리 20대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우울증의 경우 4년간 22.2%가 증가했고, 알코올중독은 20.9%의 환자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20대 청년 정신건강 악화는 학업과 취업준비에 따른 스트레스, 불안감 증가 등 최근 경제·사회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청년실업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자의 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도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청년 실업 영향 20대 건강 악화 추세, 우울증 4년 새 20% 증가, 청년층의 정신건강 역시 나빠지는 추세가 뚜렷하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등 20대의 청년 정신건강 악화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따른 스트레스, 불안감 증가 등 최근 경제, 사회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트레스의 증가로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결론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청년실업, 당하기 싫다면?

- 국가 주도로 중소기업을 육성 → 많은 강소기업으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확보
- 기업의 투자 → 경제성장 →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의 세금감면)

→ But,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가 작음!

- 청년 인재들의 역량 ↑ → 교육에서는 수월성 확보
-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 최저임금 적정수준 유지 → 서비스 일자리 = 좋은 일자리



### 청년실업, 나 당하기 싫는데 어떻게 해야 해?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봅시다. 먼저, 국가 주도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많은 강소기업으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확보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투자로 경제성장을 시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가 작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 인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에서는 수월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 서비스업이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 분야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 다음,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꿀 수 있게끔 전환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해결방안이 실행된다면, 해마다 치솟는 청년 실업률이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해외진출?  
나만의 독특한 점!

그래서 우리는..!



### 조금 더 와닿는 해결방안은 없나요?

앞서 말한 해결방안은 정부나 기업 측에서 주도하는 것이므로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관점에서 살펴보면, 선생님께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서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해외로 진출하여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닌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경쟁 사회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세계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진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맞춤 공부라던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뛰어난 분야에서 돋보이게 보이는 방법입니다. 인기 있는 분야이지만 모두가 잘하여 우수자를 구별해내기 힘든 경쟁보다는 남들보다 자신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하면 어떨까요? 조금은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 바꾸고 넓힌다면 청년실업에서 벗어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PILOGUE

## 청중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 강연의 처음 목표는 학생들에게 청년실업에 대한 정보와 현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청년 실업을 제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쉽게 우호적으로 바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정부 측에서 발표한 전략에 대해 언급하며 실천을 유도한다면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많기도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1학년 시기를 보낸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 더 되새기고 느낄 수 있는 강연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임팩트있는 인상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 강연을 준비하였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고,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ONE-STEP GROWTH

## THROUGH THIS ACTIVITY.

기본적으로 강연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청년실업의 원인, 해결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연 이후 들어오는 기습적인 질문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주제에 대한 발표를 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보며 준비하였고, 20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발표하는 방법을 조금은 터득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열린연단 BEST를 준비하며, 열린연단 이후 학우들이 써준 코멘트를 통하여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첫 강연 때 직접 느끼기에, 그리고 친구들이 써준 코멘트를 보며 이 부분은 어려워졌다 하는 부분인 청년실업의 원인, 구체적이지 않았던 해결방안을 보며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기사를 찾아보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물어보며 더 실현 가능성 있고 잘 와닿는 정보를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미지화를 통하여 글로써 제 정보

와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사진을 보여주며 저의 언어로 직접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발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열린연단을 마친 후 청년실업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연구하고 분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미리 준비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령대를 나누어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람들은 청년실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 때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다음은 당신입니다”

10616 채윤희

“저의 할머니를 비롯한 세상의 수많은 노년층은 기존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기존의 방식을 지워갑니다.”

원하지 않았던 나의 차례,  
다음은 당신입니다.

10616 채윤희

강연자는 인기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의 한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요소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무인 택배함, 디지털 금융 서비스, 스마트폰 영화 예매 등은 누군가에게 다른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강연자는 디지털 소외가 더 이상 노년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 우리의 문제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미래에서, 어떠한 계약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또한 더욱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함께 공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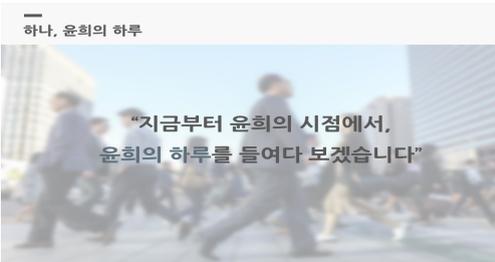
작지만 큰 불편함을 꼬집다!



박막례 할머니의 팬이었던 저는, 우연히 인기 유튜버인 ‘박막례 할머니’의 <막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72세인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가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섰지만, 영어로 되어있는 메뉴판, 비슷한 사진들, 작은 글씨, 몇 번의 시간 초과로 인한 초기화 등으로 인해 주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문득 제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동안 제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많은 노인분들이 왜 기차 안에서 서서 가는지, 왜 키오스크 기계 앞에서 행동을 멈추셨는지 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노년층과 같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소외 계층의 상황을 누군가와 함께 공감하고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당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CONTENTS

원하지 않았던 나의 차례, “다음은 당신입니다”



하나, 윤희의 하루



하나, 윤희의 하루



하나, 윤희의 하루



하나, 윤희의 하루



하나, 윤희의 하루



하나, 윤희의 하루



**“지금부터 윤희의 시점에서 윤희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윤희는 오랜만에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가기 위해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윤희는 일단 기차 예매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집을 나섭니다. 출발하면서 앱으로 기차표를 예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오전부터 오후 표가 매진됩니다. 그래도 윤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희에게는 스마트폰과 앱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가 없으면 기차 타러 가는 길 내내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자리가 나면 수행 폭탄 기간 프로젝트실 신청을 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터치합니다. 결제를 끝난 뒤 밀려오는 것은 행복과 프로젝트실 신청을 성공했을 때와 같은 기쁨입니다. 이 모든 치열한 과정은 단순히 스마트폰과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윤희는 성공적으로 기차역에 입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윤희가 기차표를 예매하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볼까요? 윤희가 유유히 기차역에 들어왔던 그 순간 창구에는 유독 노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요. 입석을 면하려면 최소한 몇 시간 전에 예매해야 하지만, 윤희는 주로 인터넷 웹페이지 혹은 앱을 이용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 방문뿐입니다. 윤희는 인터넷을 이용해 티켓팅이라는 방법으로 출발 3분 전에도 티켓을 살 수 있지만, 노인들은 출발 3시간 전부터 기차역에 와야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편리를 제공하는 세상에서 노인들은 그렇게 배제됩니다.



—  
들, 누군가의 하루



“고령의 노인들은 점점 작아지고,  
사회의 장벽은 커진다.”

—  
들, 누군가의 하루

## 무인화 기기, 정보의 발달!



### 원하지 않았던 나의 차례

무인화, 자동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계가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은 요즘, 스마트폰을 넘어 이제는 무인 택배함, 키오스크 음식 주문, 온라인 영화 예매 등 ‘디지털’ 환경을 잘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령의 노인들은 점점 작아지고, 사회의 장벽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발달이 업주에게는 인건비를 줄여주고, 소비자는 주문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디지털 환경이 낯선 고령층은 디지털 소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 셋, 우리는 지금?

### IT [르포] "햄버거도 못 시켜먹는다"...서러운 노년층 '디지털 소외'

김희진 기자 | 승인 2019.01.10 15:35 | 댓글 0

#### 집 근처 은행은 점점 찾기 힘들고 '디지털금융 소외' 노년층, 길

젊은 층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보지만 노년층은 그렇지 않다. 노년층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다. 노년층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다. 노년층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다.

연령	디지털 금융 소외율 (%)
19세 이하	13.8
20대	15.6
30대	24.5
40대	32.8
50대	38.1
60대 이상	41

노년층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다. 노년층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다. 노년층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다.

"기게보다는 사람이 편해"...10분 기다려야 겨우 주문  
"무인주문기 있는 곳은 꺼리지는 게 사실"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정보화 교육 필요"



10일 오전 서울 중랑구의 한 햄버거 레스토랑에서 80대 노년층이 키오스크 대신 매장 직원에게 주문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 = 김희진 기자



기레소 부름은 눈에 꼬리 같은 '올메미 공식'

### 셋, 우리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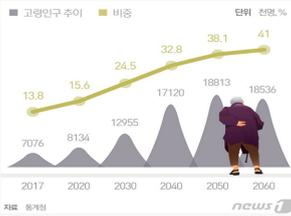
### 디지털 소외란?

### 셋, 우리는 지금?

= "디지털 디바이드"  
= 경제적, 사회적 여건 차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격차를 의미

### 셋, 우리는 지금?

#### 65세 고령인구 추이 및 비중



### 셋, 우리는 지금?

노인 디지털 소외

- 디지털 금융 확산
- 모바일 앱업점과 자동화기기 지속적으로 갈수록 증가
- 2017년 앱업점 251개 폐쇄, 올해는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질 예정
-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출시한 전체 상품 291개중 모바일만 가입이 가능한 모바일금융상품은 64개(22%), 모바일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모바일우대상품은 25개(8.6%)

### 셋, 우리는 지금?

노인 디지털 소외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단위: %)

연령	디지털정보화 수준 (%)
19세 이하	115.7
20대	128.6
30대	126.1
40대	112.7
50대	95.4
60대	55.3
70대 이상	30.7

자료: 한국정보통신연구원 2016년 디지털정보화조사 실태조사

### 디지털 소외가 뭔가요?

디지털 소외란 디지털 디바이드라고도 불리며 경제적, 사회적 여건 차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격차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소외의 해결은 금융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디지털 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영업점과 자동화기기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모바일 우대 상품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은 디지털 금융의 측면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100으로 가정해 계산하였을 때,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20대와 70대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65세 고령인구 추이 및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디지털 소외는 큰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지금?

현재,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KB 국민은행 그리고 SK 텔레콤은 시니어 사업, 스마트폰 교육, 코딩 수업 등 고령층의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취약계층 맞춤형 전화 서비스, 금융 감독원의 고령층을 위한 교재 개발을 통해 노인 계층도 디지털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넷, 미래를 위해



—  
넷, 미래를 위해



"노노인존 (No 老人 zone)"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앱을 통해 기차표를 예매하는 일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편한 대신 노인들이 티켓을 살 확률이 낮아집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업 시간을 공지하는 식당이 늘어납니다. 노인들이 못 가는/가더라도 헛걸음하는 식당이 늘어납니다. 앱을 통해 택시를 잡습니다. 우리가 택시에 앉아 있을 때 길가에는 한참 전에 나와 여전히 택시를 잡고 있는 노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식당을 예약하고, 미용실을 예약하고, 택시를 타고, 기차를 타는 세계에서 그들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은 “노노인존 (No 老人 zone)”이 되고 있습니다. 삶이 편리해질수록 노인들은 배제됩니다. 저의 할머니를 비롯한 세상의 수많은 노년층은 기존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기존의 방식을 지워갑니다. 그렇게 노인들은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점점 지워지는 그들을 더 이상 외면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강연을 처음 열었던 한 마디로 강연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신입니다.”

#EPILOGUE

Q1. 현 노년층이 사라지면, 디지털 소외도 결국 없어지는 문제 아닌가요?

A. 미래를 예측하시나요? 그렇다면 대단하시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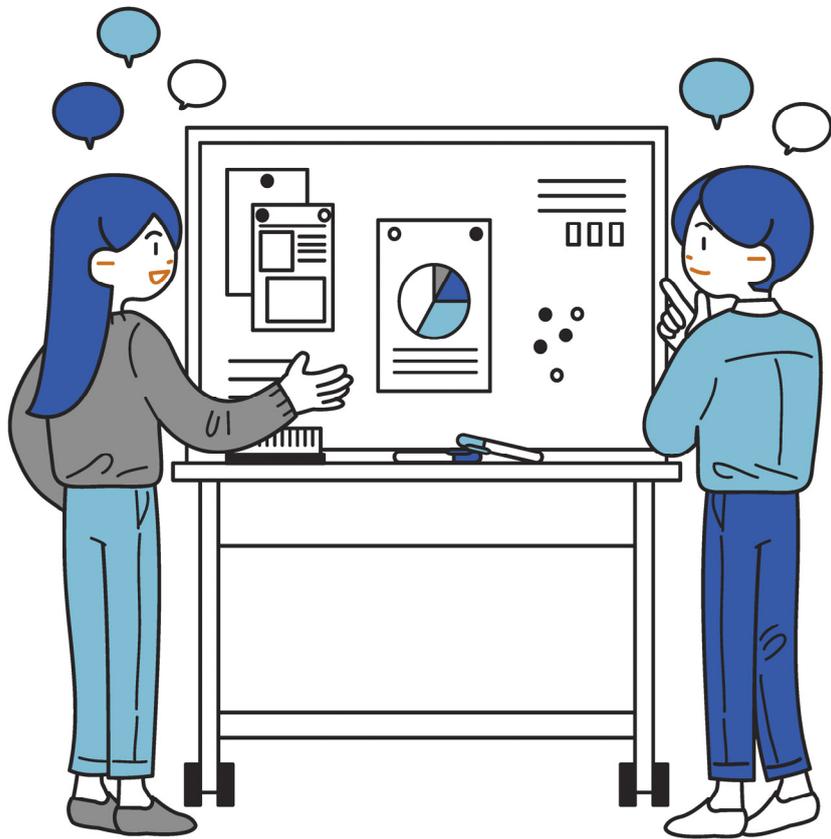
우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권력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건 단편적으로 공감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소외의 대상층이 노년층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나이였을 때, 즉 청년층이었을 때는 그들이 이런 사회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생활이 스마트폰 하나로 좌지우지되고, 편의의 정도가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걸 예측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보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어떤 기기가 탄생되어 우리를 괴롭히게 될까요? 따라서 이 질문의 답을 요약하자면, 펼쳐지지 않을 미래에서, 새로운 노년층이 될 우리도 언젠간 디지털 소외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디지털 소외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동반했을 때 훗날 우리 역시도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ITH\_YOU

‘함께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의 마지막에 있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한 마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소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발전된 디지털 기기를 모조리 없애고, 전부 사용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 즉, 노년층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갈피를 잃었을 때 함께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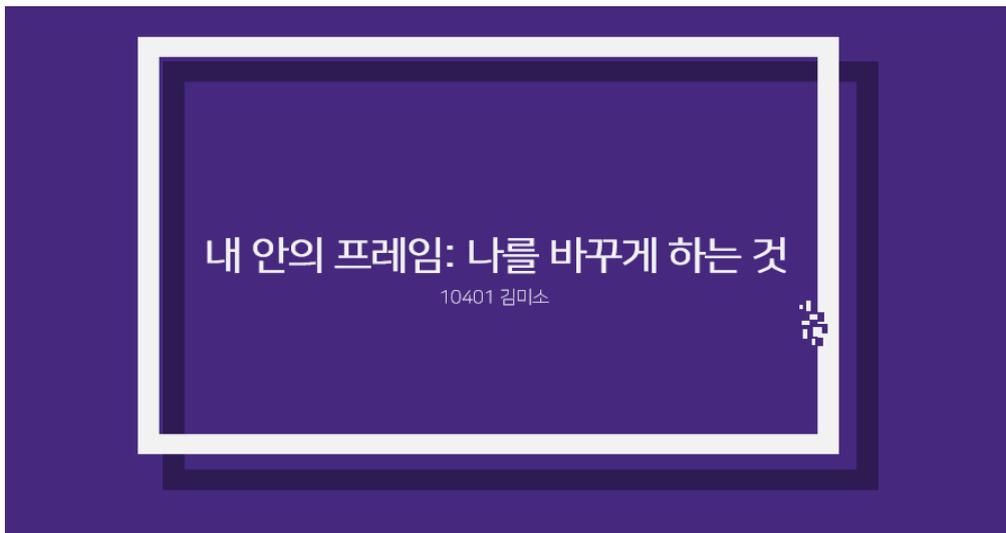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에 해당되지 않는 나’ 그리고 ‘디지털 소외의 대상인 사람들’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사고하고, 타자화해야 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이 모든 바탕에 있어서, ‘당연히’ 모두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디지털 세상 속, 건강하고 배려 넘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내 안의 프레임: 나를 바꾸게 하는 것

10401 김미소

“당신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고  
리프레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흔히 알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의미는 심리학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프레임의 존재를 몰랐던 청중들에게 자신은 어떤 틀과 창으로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지와 낯은 프레임을 리프레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남자는 외과의사일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사고하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며, 성 고정관념이라는 자신의 낯은 프레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자의 리프레임 경험과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리프레임하라!’라는 문구처럼 이 강연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BACKGROUND

### 나만의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다?

서점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책 ‘프레임’은 나의 이야기와 접목하며 ‘리프레임’에 대한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서울대학교 심리 학 최인철 교수님께서 지필하신 책으로 평소에 프레임은 틀이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창이라는 심리학 용어로 새로운 의미를 머릿속에 되새길 수 있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리프레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며 나만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직도 낯고 허물어진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인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프레임의 존재와 리프레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 #CONTENTS

### 심리학 용어의 프레임은 무엇일까?

#### 1. 프레임이란...



심리학에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 프레임이란?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뜻 아시죠?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레임이라고 영어사전에 검색하면 창 또는 틀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과 비슷하지만,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단지 세상을 바라본다는 문구로 크게 프레임이라는 의미가 변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프레임이 어떻게 심리학에서 쓰이고 지칭되는지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프레임’ 책에서 소개되는 하나의 사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외과의사는 남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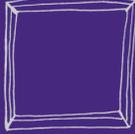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차를 탔습니다. 아버지의 운전하는 차의 시동이 갑작스럽게 멈추었고 옆에서 지나가는 화물차가 아버지와 아들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아들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을 수술하기 위해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난 이 응급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라고 외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은 사고를 당했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혹시 의사가 친아버지이고 야구장에 같이 가던 아버지는 양아버지인 걸까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외과의사는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외과의사=남자’라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프레임은...



프레임은 하나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2. 프레임은  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낯고 가는 프레임이다.

### 여러분들의 낯은 프레임

만약 성 고정관념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그 의사가 엄마이었음을 바로 짐작했을 것입니다. 외과의사가 무의식적으로 남자라고 생각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낯고 가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 세상에 대한 비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이라는 것에 속합니다. 이처럼 프레임은 우리의 가정, 전제, 기준, 고정관념, 은유, 단어, 질문, 경험의 순서, 맥락 등으로 하나만을 이야기 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4. 프레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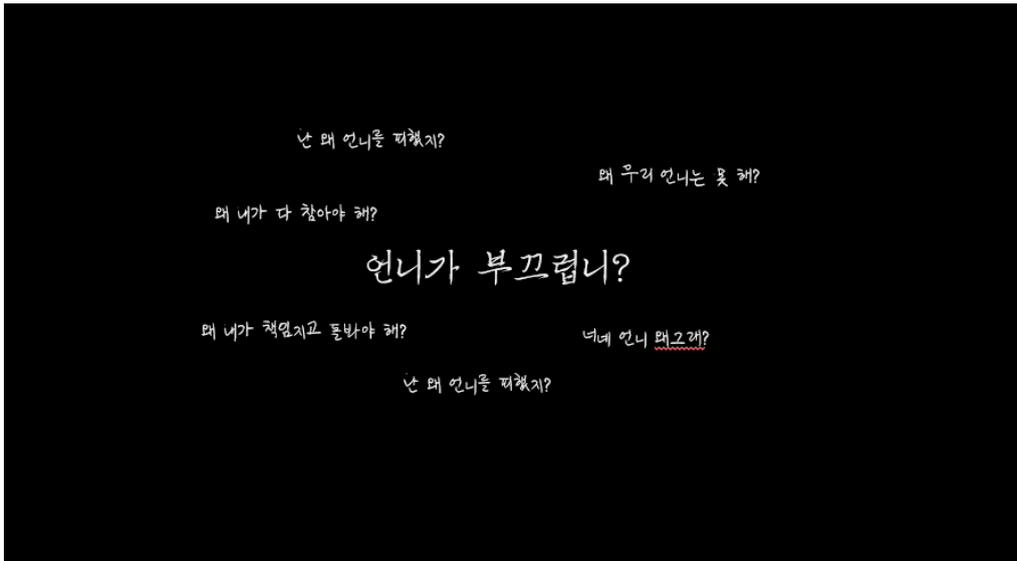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장애인은?

프레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하나의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시나요? 혹시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하거나 같이 생활해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장애인은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기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능지수 즉 IQ가 34 이하를 1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 장애인 1급인 언니의 동생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교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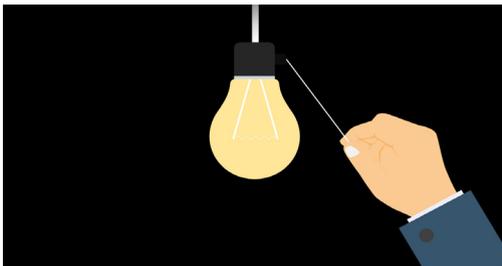
장애가 있었지만 언니를 정말 아끼고 따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는 방에 들어와서 아이의 과제물을 찢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언니는 정말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중요했고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란스러움에 방에 들어왔고, 당연히 과제물을 잘 간수하지 않았다고 아이의 탓을 하였습니다. 그저 책상에 올려놓았는데 말이죠. 아이는 화났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언니는 남의 언니들과는 다른 걸까? 아이는 언니의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언니가 같이 가게에서 떡볶이를 먹고 같이 등 하교를 하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에 부러움을 느꼈죠. 이러한 비교 프레임이 아이에게 생기기 시작하였고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언니는 그러지 못할까? 왜 나에게 피해만 주는 것일까?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언니를 미워하는 마음

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종일 언니의 얼굴을 아예 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졌고 어느 날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키워왔던 ‘미움’이라는 감정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친한 친구와 하교를 하고 있을 때 아이의 엄마와 언니가 때마침 바로 정면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지만, 바로 등을 돌리며 친구와 딴 길로 걸어갑니다.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한 친구를 보며 안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바로 아이에게 한 말은 “언니가 부끄럽니?”라는 이 한 마디였습니다. 그때 아이는 그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어떻게 엄마와 언니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비교 프레임을 넘어서 타인의 시선을 우선시 생각하여 의식하며 나만의 프레임에 갇혀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아이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특정한 편견과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바라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던 것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 리프레임하다!

그 아이는 밝고 낯은 프레임을 버리고 아니 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또 다른 리프레임을 위해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같이 하교했던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은 나도 지적 장애를 가진 오빠가 있고 일요일마다 같이 센터에서 봉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한 것도 정말 저에게는 큰 결심이었고 하나의 리프레임이었습니다.



### 리프레임 다음 깨달음

‘언니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거나 너도 장애인이 아니냐, 언니 어떡하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충분히 공감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EPILOGUE

인생을 바꾸고 싶나요?



###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프레임을 리프레임 하라!” 여러분들 삶에서도 프레임이라는 창을 통해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혹은 긍정적인 장치가 되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리프레임을 통해 미성숙한 나를 반성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들이 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프레임을 리프레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들도 프레임에 갇혀있다면 빨리 출구를 찾아 프레임이라는 틀 밖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내 인생의 Spotlight

10414 최현승

‘삶’이라는 연극 속에서  
당신의 조명은 누구를 비추고 있나요?



강연자는 우리가 살아가며 형성하는 수많은 관계 속 잊힌 ‘나’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의 감정을 숨기고 내 필요를 무시하는 학생들에게 관계 속 ‘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강연자는 일반적인 상황,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심리학 용어, 개인의 경험 등을 제시함으로써 청중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BACKGROUND

### ‘초점’이 만드는 관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곤란한 상황과 직면하게 됩니다.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하기 힘들다거나, 울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껏 울지조차 못하는 상황들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걸까요? 어떠한 억압들이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울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을까요? 사실 그 무엇도 우리를 직접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지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초점을 제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상대방에게 맞춰진 초점에 의해 좌지우지되곤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모두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서 조절하고 또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계기로 제 강연을 통해 청중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 없이 초점을 자신에게 맞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CONTENTS

### 내 인생의 Spotlight

####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은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아주 중요한 쪽지 시험이 있는 시간입니다. 가령 주연 선생님의 원서 시험 시간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당신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는커녕 원서 한 줄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시간은 자습 시간입니다. 당신은 급하게 원서를 꺼내 들고 이제 막 첫 줄을 읽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당신에게 친구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신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행평가 감점을 무릅쓰고 친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쪽지 시험을 준비하시겠습니까?

### 나는 착한 아이일까?

앞서 제시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은 번번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유독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혹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착한 아이 증후군은 심리학 용어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용어 중 하나인데요.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들을 숨기고 타인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면서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어린 시절 주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유기공포가 심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유아적 의존 욕구’를 거부하는 방어기제의 일환으로 봅니다. 사실 증후군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용어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증후군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생활합니다. 언제나 밝고 명랑해 보이는 사람,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언제나 주변 반응에 순종적인 사람,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자신이 먼저 사과하는 사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등은 모두 착한 아이 증후군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 중 ‘설마 나도...?’ 하시며 자신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른 친구를 떠올리며 ‘뭐야 딱 누구 같잖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모습들을 제게서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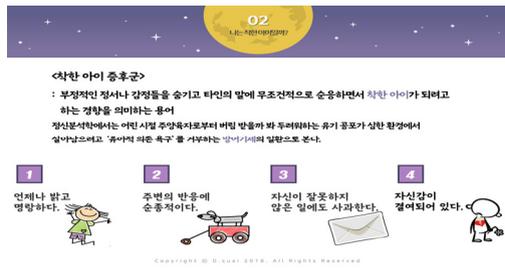
어릴 때 저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생활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두 분 모두 일 때문에 바쁘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어린 제게 있어 늘 바쁘시던 부모님의 모습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게 했습니다. ‘바쁘신데 괜히 힘든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중학교 때의 친구와의 다툼은 제 성격, 말투, 습관 등이 제게 ‘잘못된 것’으로 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제 인생에서 조명을 나에게서 타인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를 욕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앞에서 들어도 화내지 못하고 웃어넘기게 되었고, 무리한 부탁을 들어도 거절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꼭 알려야 하는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조차 나는 밝아야 하니까,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 숨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은 저를 꽤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지쳐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받아

보기도 하고 일기를 써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제가 깨닫게 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 내 인생의 Spotlight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타인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에는 맞서서 나를 지키고, 무리한 부탁은 조심스럽게 거절하며 나를 챙겨야 합니다. 울고 싶을 때는 남의 눈치를 조금 덜 봐도 좋습니다. 타인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나의 감정 역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연극에서의 조명을 생각해주세요. 연극의 조명은 그 연극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을 비춥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가장 많은 빛을 받는 인물은 바로 그 연극의 주인공입니다. 나의 인생 또한 하나의 연극과 같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내 연극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조연에게 비추는 조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나에게 비추는 조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강연을 계기로 청중 여러분의 조명이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 [참고] 발표 자료



착한 아이 증후군 테스트  
-말하노...-

- ①1.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 ①2. 부탁을 제대로 못 들어주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 ①3. 모든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여긴다
- ①4. 나쁜 기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 ①5. 쉽게 상처 받는다
- ①6. 상대방이 화를 내면 대저를 못한다
- ①7. 눈치를 많이 본다
- ①8. 할 말을 못해서 답답하다
- ①9.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COPYRIGHT © D. SUKI 2018. ALL RIGHTS RESERVED

03  
자신감은 믿어주려는  
세 아이의 친구들!

COPYRIGHT © D. SUKI 2018. ALL RIGHTS RESERVED

04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할 사람은 나야"

"나에게 더 집중할래"

COPYRIGHT © D. SUKI 2018. ALL RIGHTS RESERVED

감사합니다

COPYRIGHT © D. SUKI 2018. ALL RIGHTS RESERVED

**#EPILOGUE**  
남겨진 이야기

**아직 저도 노력 중입니다.**

사실 이렇게 강연을 통해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 속 저는 아직 조명을 잘못 맞출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인지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선택은 타인만이 아니라 저 또한 고려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저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매일의 기분을 일기로 남기며 내 기분에 집중하기도 하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일을 적으며 내 의견에 집중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초점'이 타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은 꼭 그렇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초점'이 타인에게 자주 맞춰지는 사람들은 좀 더 세심한 사람일 수도, 배려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속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조명을 나에게 맞추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하며 형성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조명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타인만을 위한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기 마련입니다. 예전의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주체에는 상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끊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보내는 시간 속에서 점점 자신이 관계를 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한 나 자신이 필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 그래도 쉽지 않은가요?

제가 시도했지만, 소개 못 했던 몇 가지 방법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1. ‘이것도 나야!’ 생각법

이 방법은 책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성해낸 습관입니다. 자존감, 자아긍정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생각법인데요.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싶은 순간이 존재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떨어져서 발표를 망쳤을 때,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지만 실패할 때 등 우리는 다양한 순간에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저 역시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법을 사용한 이후로 그러한 순간이 올 때마다 ‘이것도 나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을 테니까요. 이러한 생각을 한 후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 2. 3초의 힘

이 방법은 나를 좀 더 위하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 다른 일이 없다면 기쁘게 돕지만, 제가 할 일이 있을 때는 3초의 시간을 두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할 일, 상대가 부탁한 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최선이 무엇일지 생각합니다. 무조건 수용만 하던 제가 3초의 시간이 생기니 조금 더 나를 위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EELINGS

‘성장’

이 강연을 준비하며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나 자신도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나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었고, 현재의 나의 모습은 괜찮은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중과 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9학년도 1학년 열린연단 BEST 자료집

기 획	인천국제고등학교 12기 열린연단 추진단
디 자 인	표지디자인 10514 장채은 속지디자인 10206 박제이
발 행 일	2020년 2월
발 행 인	교장 류 기 서
자 문	교감 이 임 구
발 행 처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74-40
전 화	032-745-4500
팩 스	032-746-7510
홈페이지	<a href="http://ii.icehs.kr">http://ii.icehs.kr</a>

